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1:1-11

[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 호세아 1:1-11

[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 호세아 1:1-11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 호세아 1:1-11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다.

### 호세아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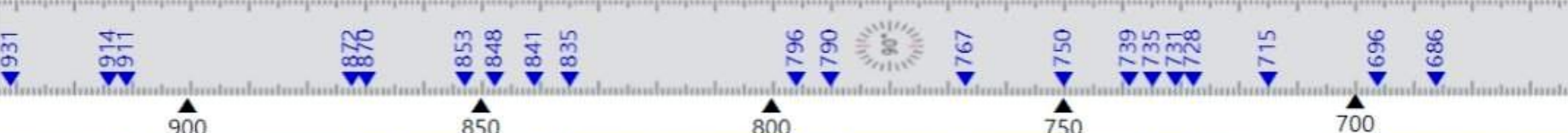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멜(음란한 여자)에게 ‘호세아’(יְהוֹשֻׁעַ, 구원자)를 보내심

고멜 같은 자기 백성에게 ‘예슈아’(יֵשׁוּעַ, 구원자)를 보내심

호세아는 예슈아의 예표, 모형 혹은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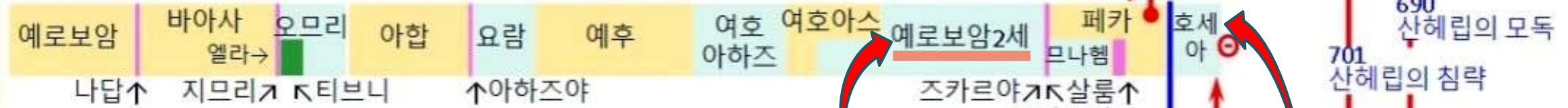
고고학적  
성경연대  
(BC)



유다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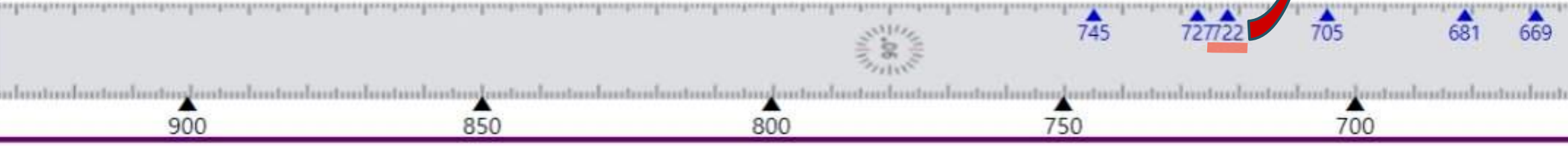
←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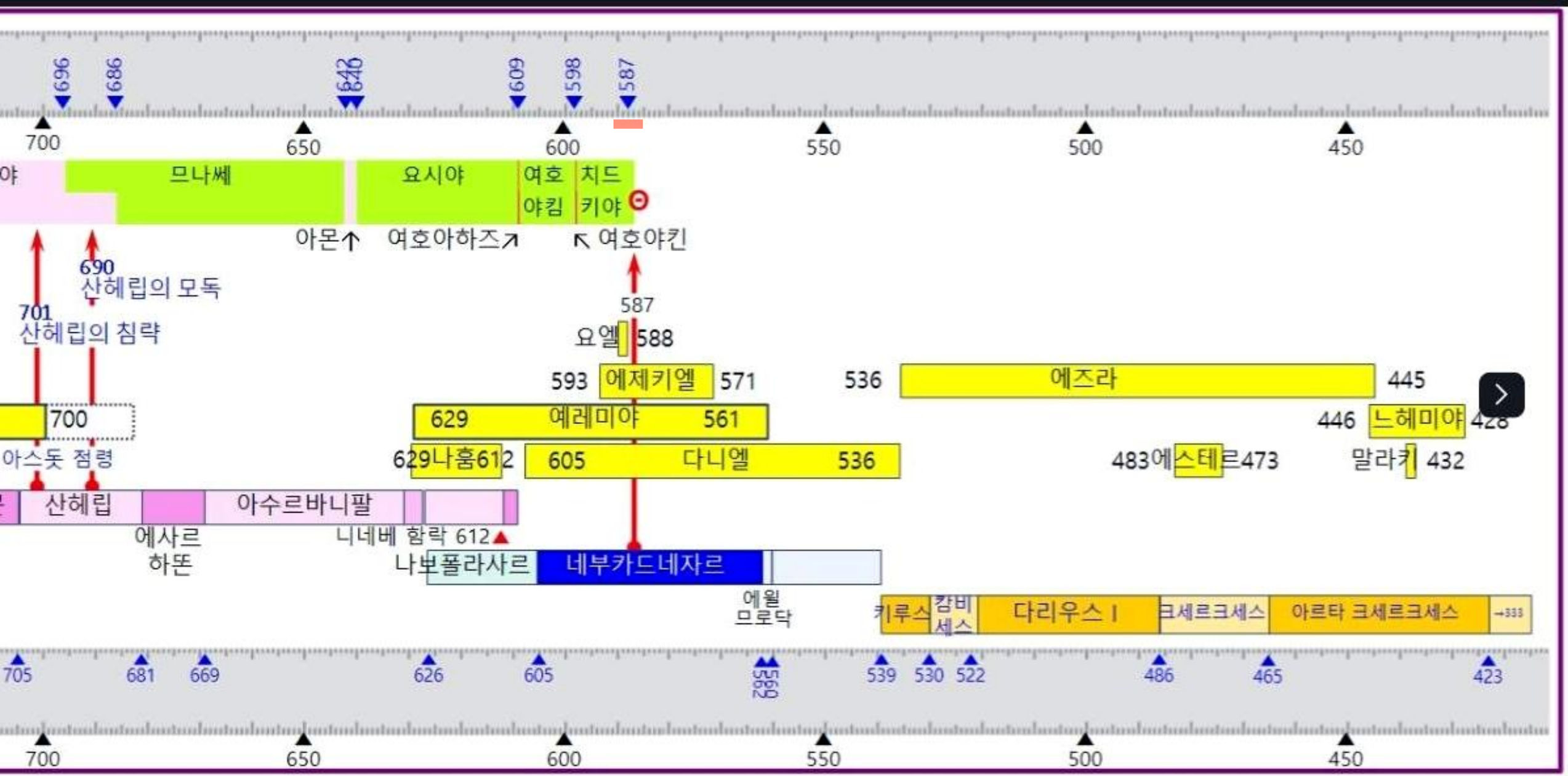
아시리아

바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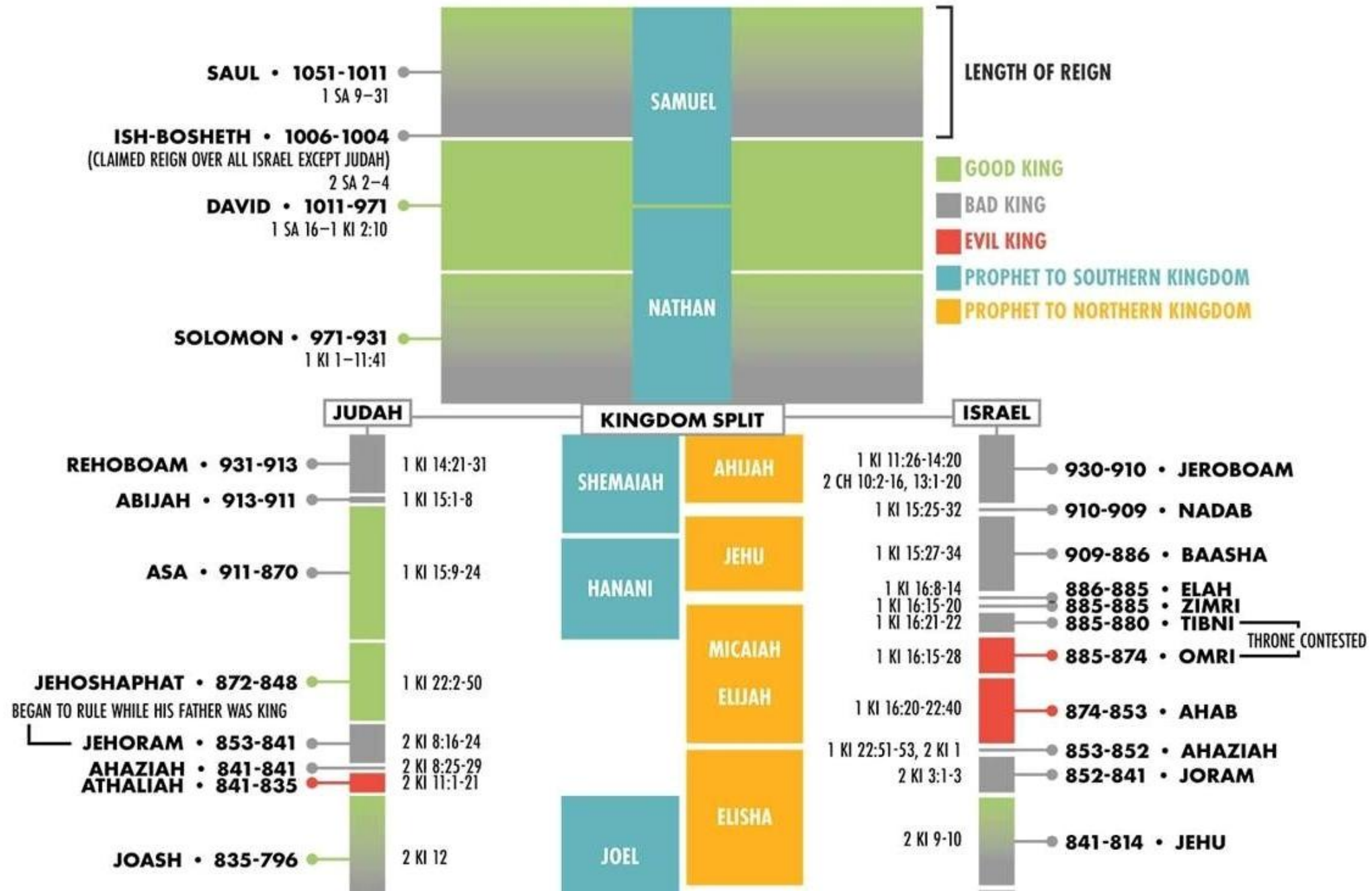
페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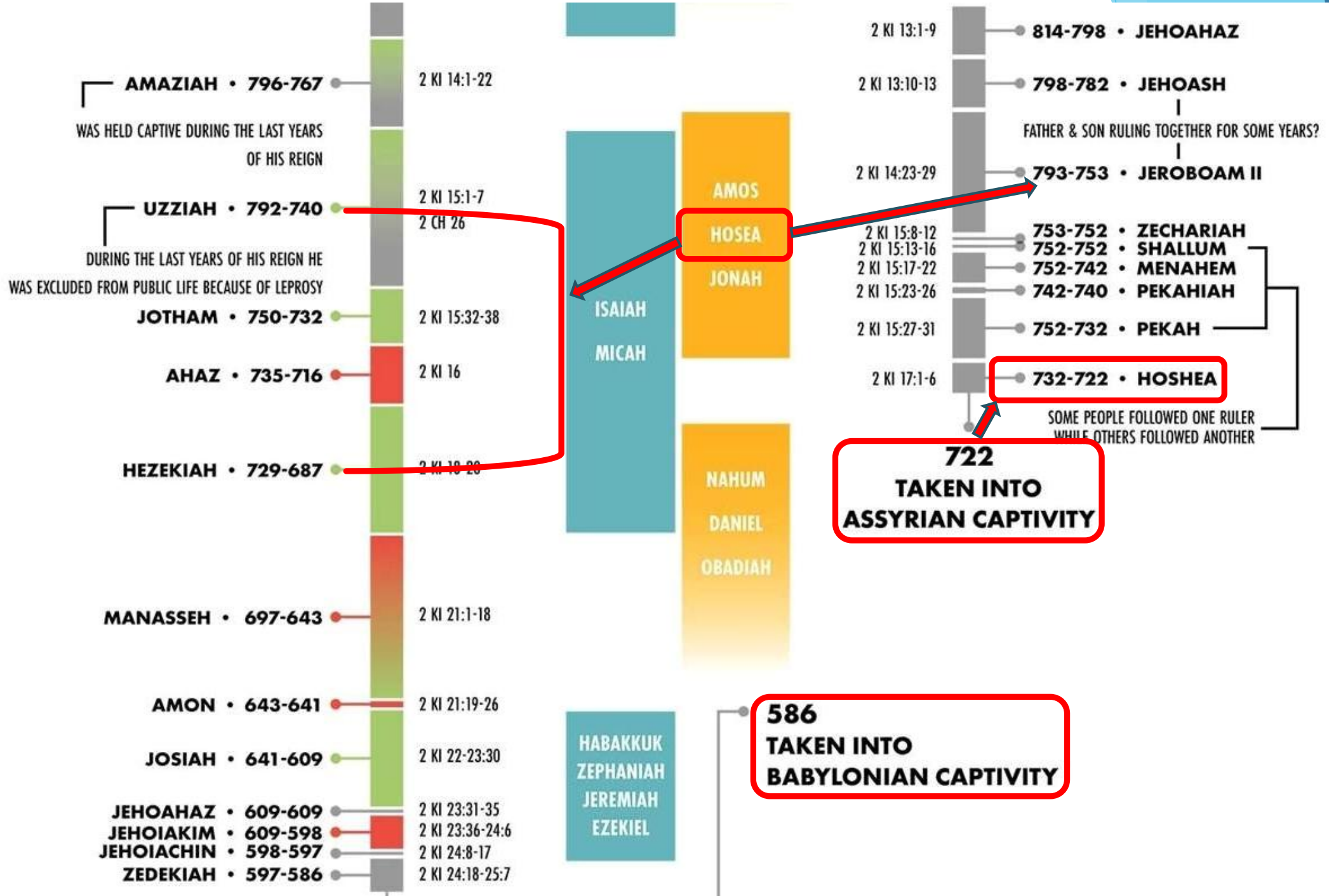
고고학적  
성경연대  
(BC)





# THE KINGS & PROPHETS OF ISRAEL & JUDAH





יהוה

Yahweh : 야훼, 여호와

네자 이름

Tetragrammaton

Tetragram

‘야훼’는 신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여호와’(예호와, יהוה)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YaHWeH’를 발음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16세기경부터 ‘야훼’ 자음에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 사용한 가명입니다.



**‘엘’(EL)**은 본래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으로서 **‘황소(송아지)+목자의 지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소는 힘을 목자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엘’은 강력한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문화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접수하면 신들도 통합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최고 신은 ‘엘’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야훼’가 ‘엘’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엘-야훼’**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함으로써 **‘벨-마르둑’**, 그리스가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아몬(암몬)-제우스’**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엘’, ‘바알’,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던 송아지가 **‘엘-야훼’ 발등상** 혹은 보좌로 단과 벤엘 성소에 200년 넘게 세워져 있어서 **혼합종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에 배정된 책입니다. 참고로 소선지서 12권의 배열은 분량의 크기 순서일 뿐 기록연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지만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은 북이스라엘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2세 (794-753 BC) 때였습니다.
- 여로보암 2세 때 한 세대가 지나면 지상에서 사라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왕국인데도 현실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및 국토회복과 팽창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 여로보암 2세 이후 시기의 특징은 ‘망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종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바알이 여호와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 이것은 정부(情夫)와 만나 나눈 사랑을 남편과 나눈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정부도 사랑하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 2006년 2월 4일 86세로 별세한 한 여성(에스더)의 부고문: “여러 남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의 도시생활을 즐겼다.”
- 호세아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멜’이란 창부(娼婦)로 묘사하였고, 이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를 ‘호세아’(‘구원’이란 뜻)로 묘사하였습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심정은 곧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 **호세아(Hoshea, ḥōšēʾā)**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yasha, 구원하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YHWH)의 이름 첫자 ‘야’ 혹은 ‘예’를 추가하여 **‘예호수아’(Yehoshua, yehōshuaʾ)**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민 13:16).
- ‘예호수아’는 “야훼는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 **‘예수’(Iesous)**는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Yeshua, yēshuaʾ)**의 헬라식 이름이며, **‘예슈아’는 ‘예호수아’의 후기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단축형**입니다.
-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 음역되어 ‘이에수스’(Iesous)가 되었고, 라틴어와 영어 ‘Jesus’를 거쳐 한국어로 **‘예수’**가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 모형 혹은 그림자**가 됩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망할 테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한 우두머리”(메시아)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5).

##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 때였고, 북이스라엘의 호황기였습니다.
- 그 때문에 호세아와 아모스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였습니다.
-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불행히도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 **여로보암 2세**는 엘리사의 지지로 혁명에 성공한 예후가 세운 왕조의 4대 왕이자 사실상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권을 이어받긴 했지만, 단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1. **스가랴**(Zechariah, 재위 약 6개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단 6개월 만에 살룸의 쿠데타로 살해됨.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반영.
2. **살룸**(Shallum, 재위 1개월): 스가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므나헴의 반란으로 1개월 만에 사망. 극도로 짧은 통치로 왕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줌.
3. **므나헴**(Menahem, 재위 10년): 디르사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름. 잔혹한 통치(반란 도시를 공격하며 임신부까지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음, 왕하 15:16). **앗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굴복.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 거두어 조공을 마련,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4. **브가히야**(Pekahiah, 재위 2년): 므나헴의 아들. 장군 브가의 반란으로 살해됨. 왕위 계승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내분이 이어짐.
5. **베가**(Pekah, 재위 20년):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 등과 동맹을 맺음.** 그러나 앗시리아의 공격으로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을 빼앗김. 결국 호세아의 쿠데타로 살해됨.
6. **호세아**(Hoshea, 재위 약 9년,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처음에는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으나,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반기를 들. 앗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후계자 사르곤 2세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앗시리아에 의해 강제 이주 당하여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모두 실종 됨.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 **특징과 교훈**: 쿠데타와 암살의 연속. 스가랴 이후 왕위는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란으로 교체됨.
- **앗시리아의 압박**: 므나헴 이후 왕들은 앗시리아의 강대함에 굴복하거나 저항하다 멸망.
- **백성의 고통**: 조공 부담, 전쟁 피해, 강제 이주로 인해 사회적·종교적 기반이 붕괴.
- **역사적 의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 왕국과 대비되며, 성경에서는 신앙적 배반과 사회적 불의의 결과로 해석됨.
  -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외교의 실패.
  - \*자기 중심 신앙, 폐쇄적 민족주의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예후**(843~815 BC, 왕하 9:1-10:36/재위 28년)는 **다윗왕조에** 버금가는 힘을 키운 **오므리왕조가 추진했던 대내외적 정치노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 **오므리왕조는** 북이스라엘을 국제무대에 알렸고, 주변의 소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상아궁(왕상 22:39, 암 3:15)을 세울 만큼 힘 있는 왕조였습니다. **아합과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결혼한 것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가 유다왕국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한 것은** 막강했던 다윗왕조의 솔로몬이 **주변국들과 결혼동맹(혼합종교)**을 많이 맺은 것과 같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예후가 주변국들과 외교를 단절한 것은** 주변국들이 자신이 혁명을 일으킨 원인인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아무튼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주변 국가들과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로 전략하였고**, 아람의 공격과 지배로 참담한 지경이 되었으며, 이를 저지할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은 **예후**를 이어 16년간 통치한 **여호아하스**(왕하 13:1-9)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샬만에셀 3세(Shalmaneser III)의 석비 (대영박물관). 샬만에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차 2,000대, 보병 10,000명" 이끌고 카르카르(Qarqar)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 석비에 기술하였다.



앗시리아의 샬만에셀 3세의 오벨리스크(858-824 BC, 대영 박물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예후(841-814 BC)가 앗시리아의 왕인 샬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과 조공물이 부조되어 있다.



앗시리아의 샬만에셀 3세의 오벨리스크(858-824 BC, 대영 박물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예후(841-814 BC)가 앗시리아의 왕인 샬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과 조공물이 부조되어 있다.



앗수르왕 샬만에셀3세에게 테번을 쓴 이스라엘왕 예후와 사절단이 조공을 바치는 행정(주전 853년, 블랙 오벨리스크)



앗수르왕 다굴랏 빌레셀3세의 북왕국 이스라엘 침략 때 머리에 테번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주전 730년초, 왕하 15:29, 넘류드 부조)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이 상황이 크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여호아하스를 이어 15년간 통치한 **요아스**(왕하13:10-13) 때였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요아스를 이어 41년간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794-753 BC, 왕하14:23-29) 때였습니다.
- **이 호황기에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활발해진 국제 무역으로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이 복구되었으며, 상아와 도기 등의 사치품들이 넘쳐났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동시대의 선지자 아모스는** 부자들이 상아로 장식한 겨울 궁과 여름 궁(암 3:15)을 짓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상아로 장식한 침상에 눕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암 6:4-6).
-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 사회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철저히 무관심하였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종교적으로도 **혼합종교**로 인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과 여호와, 바알종교와 여호와종교를 혼돈하였습니다.
- 엘과 바알과 아스다롯의 발등상(보좌)이었던 **황금송아지**가 **벧엘 성소**와 **단 성소**에 **여호와의 발등상(보좌)**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이방세계의 종교문화를 본뜬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 호세아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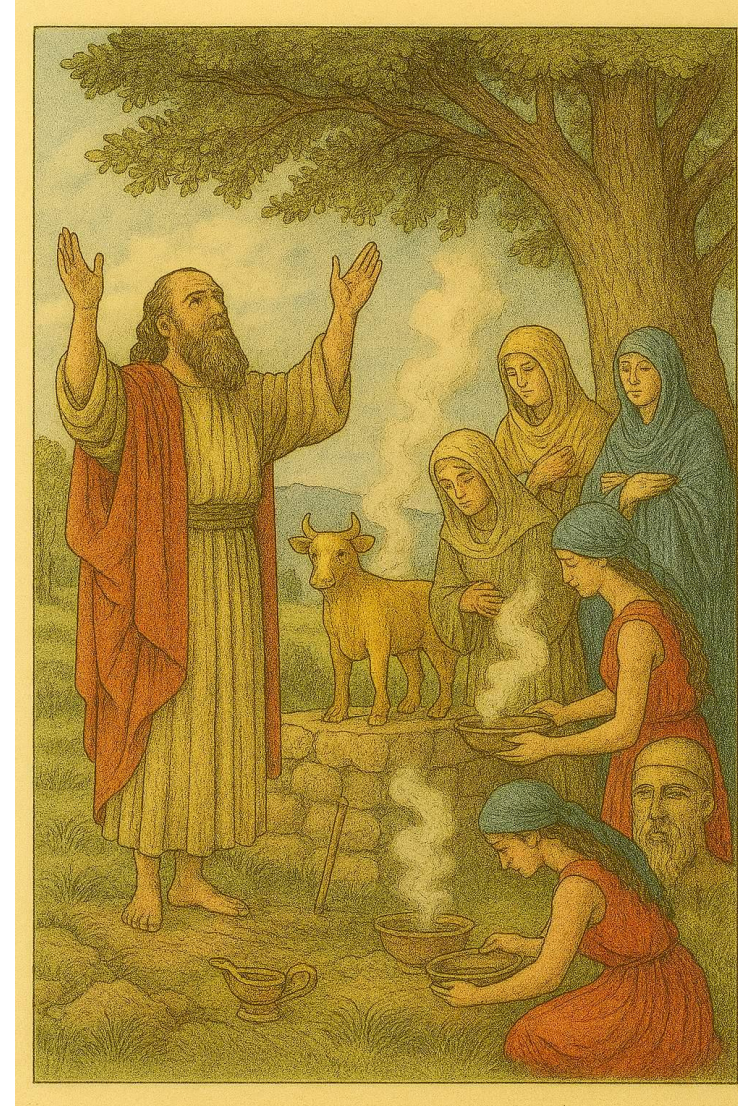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참고로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의 법궤는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이었습니다.
- 또 고대근동의 유물들 중에 신(우상)들이 송아지 등에 올라선 부조들이 있습니다.
- 백성과 국가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던 황제나 왕들의 보좌들은 대체로 수호신들인 라마수, 그리핀, 스프링크스 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법궤 뚜껑 좌우에 두 그룹(케류빔)이 세워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는 물론이고, 하늘 성전(계 4장)에도 네 생물 곧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제조한 최초의 인물은 **아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보좌가 법궤여야 했던 것과 형틀에 부어 만들거나 조각칼로 새겨 만들지 말라는 계명들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 게다가 송아지(황소)는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과 바알의 보좌 혹은 발등상이었으므로, 여호와와 엘 혹은 바알과 혼동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바알종교에 끌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은** 성창(聖娼)과 몸을 섞을 수 있는 **푸른 나무(러브텔)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산당’(אֲשֵׁרָה, 바마=높은 곳, 신들의 거처)은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돌기둥(마쭈바), 푸른 나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세라는 엘의 부인이지만, 바알이 엘의 위치로 부상되면서 바알의 부인처럼 묘사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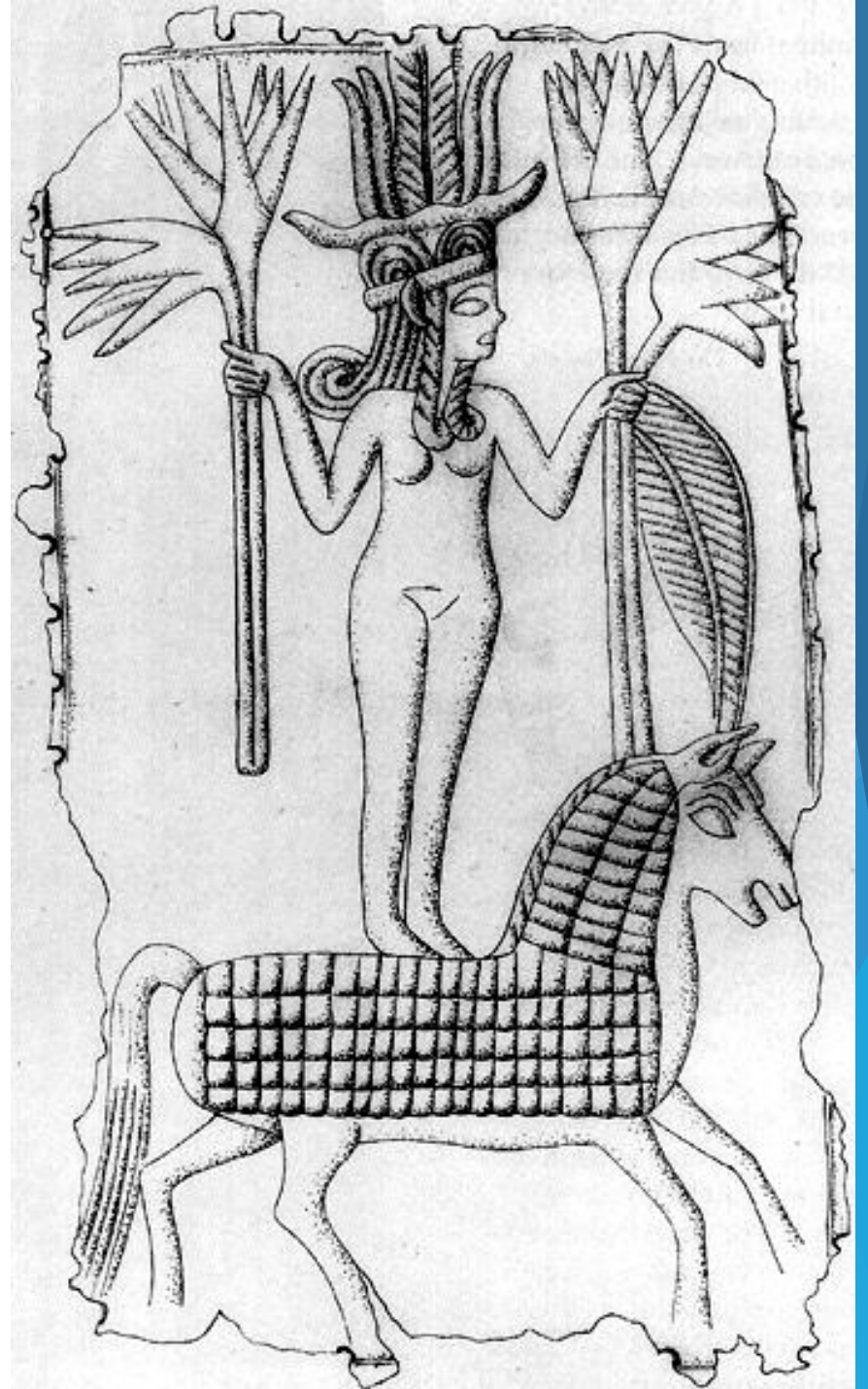


**황소(송아지) 우상**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올라선 **보좌**  
또는  
**발등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엘의  
딸, 바알의  
누이이자 부인)



**법궤**는 **야훼**(여호와)의 보좌 또는 **발등상**이었습니다.

- 시내광야에서 **아론**이 야훼의 발등상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는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신 10장).
- 이로써 이스라엘에서는 법궤가 황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보좌 또는 발등상으로써의 황금송아지와 법궤의 차이점

- **황금송아지**는 형틀에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부어 만들거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 **법궤** 위 케류빔은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었고, 법궤에 썩은 금박도 금을 두들겨 펴서 감싼 것입니다. 오직 운반 막대기를 끼우는 고리만 부어서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 이로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성령(聖靈)이신 여호와에게서 멀어졌고,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국제 정세변화를 읽지 못한 외교적 패착으로 아시리아에 멸망하여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불과 한 세대 앞둔 북이스라엘의 절정기에 선지자 호세아(구원이란 뜻)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정확히 표현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에서 예언하였습니다.

## 호세아 1:1-11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다.

### 호세아의 주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멜(음란한 여자)에게 ‘호세아’(**יְהוֹשִׁעַ**, 구원자)를 보내심

고멜 같은 자기 백성에게 ‘예슈아’(**יֵשׁוּעַ**, 구원자)를 보내심

호세아는 예슈아의 예표, 모형 혹은 그림자

- **호세아(Hoshea, ḥōšēʾā)**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yasha, 구원하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YHWH)의 이름 첫자 ‘야’ 혹은 ‘예’를 추가하여 **‘예호수아’(Yehoshua, yehōshuaʾ)**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민 13:16).
- ‘예호수아’는 “야훼는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 **‘예수’(Iesous)**는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Yeshua, yēshuaʾ)**의 헬라식 이름이며, **‘예슈아’는 ‘예호수아’의 후기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단축형**입니다.
-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 음역되어 ‘이에수스’(Iesous)가 되었고, 라틴어와 영어 ‘Jesus’를 거쳐 한국어로 **‘예수’**가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 모형 혹은 그림자가 됩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10절) – 인간의 현실에 비취볼 때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다.

고멜=인간의 현실과 현장

-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인간은 피조물로서 부족한 존재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와 허물 곧 음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현장이며 현주소입니다. 또한 이것이 호세아 혹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호세아 1:1-11

- 3절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멜**”은 “**음란한 여자**” 곧 창녀처럼 행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 그녀의 이름에 그녀의 직업이 나타나 있기는 해도 그녀가 바알산당의 성창(聖娼)이었다거나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 그녀는 주변에서 바람둥이로 소문난 여성이었던 것 같고, 호세아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은 후에는 가출하여 다른 남자로부터 지참금(mohar)을 받고 중혼(重婚)한 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고멜이란 말에는** 사람들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멜’(gomer)은 ‘성취’, ‘완료’, ‘끝냄’이라는 뜻입니다. “**디블라임**”이란 말에도 그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디블라임’(Dibblaim)**은 **‘데벨라’(develah, 무화과 케이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복수형입니다. 고멜과 그녀의 모친은 못 남성의 입 속에 있는 무화과 케이크처럼 달콤하였으므로 못 남성이 그녀들을 무화과 케이크 먹듯이 먹어 치울 것이란 뜻입니다.
- 무화과 케이크란 잘게 썰어 말린 무화과를 틀에 넣고 압축한 비황(備荒)식품을 말합니다. **‘디블라임’(Dibblaim)의 또 다른 뜻은 ‘디바’(dibah, 비방, 나쁜 평판)**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 모녀가 모두 가십의 대상이었고, 비방을 받거나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도 음란하고, 어머니도 음란하고, 자녀들도 대를 이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이고 현실이며 운명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화살은 꺾이고, 긍휼(용서)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로 짓게 하였고, 두 번째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사랑받지 못한 자**)로 짓게 하였으며,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였습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그러나 **이 이름들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백성이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 혹은 그 기간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란죄는** 열왕기서에 8번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연결됩니다. 열왕기서는 북왕조들의 멸망의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 탓이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와 그의 죄와 동일한 죄를 북이스라엘이 범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 “여로보암의 죄”가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란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란죄란 것이 성경 66권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 야훼 하나님=보이지 않는 살아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 고멜의 남자=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조각된 혹은 주조된 우상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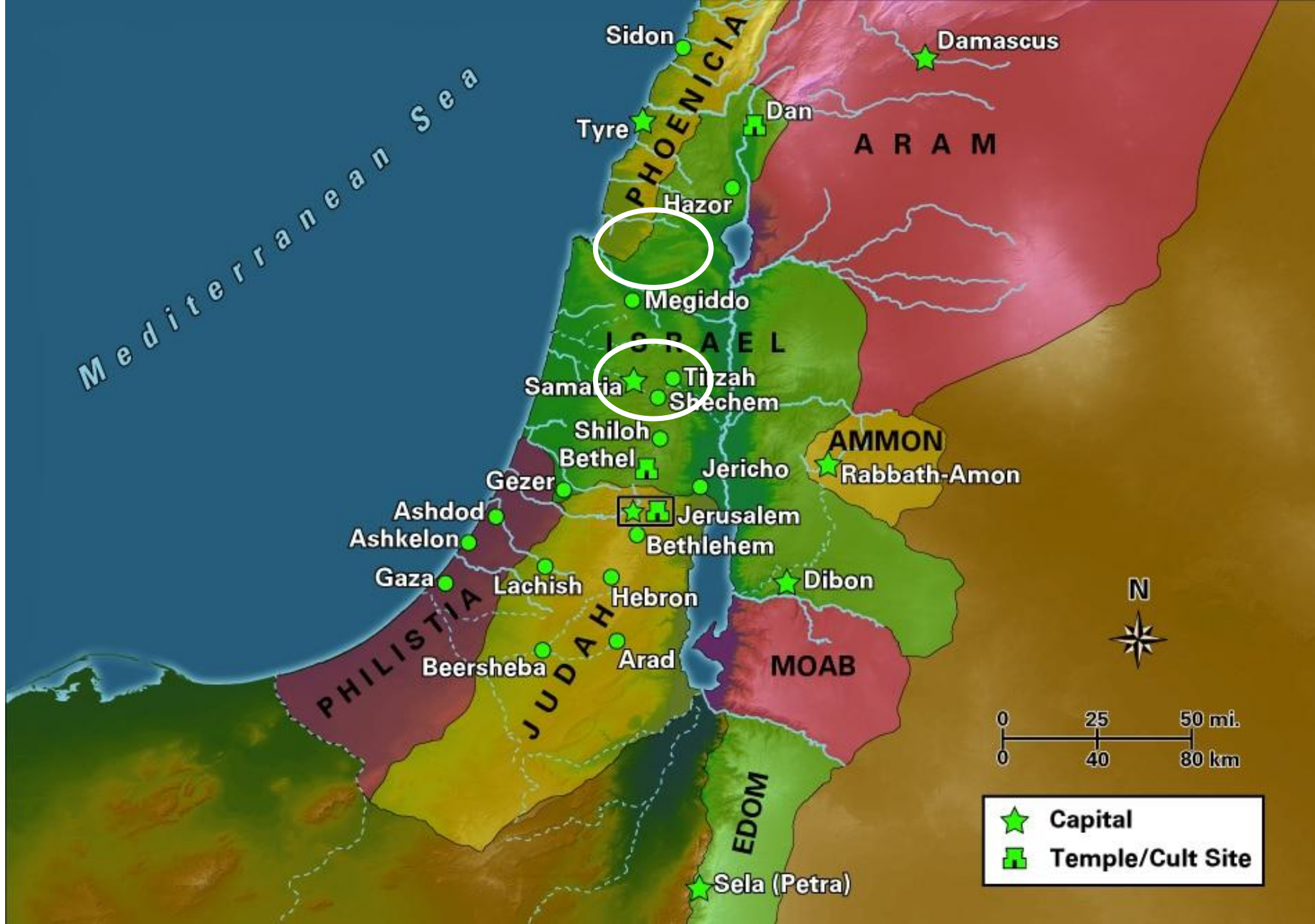
- 그런 점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알숭배가 크게 성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 **‘이스르엘’**은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 곧 므깃도와 갈멜산과 다볼산 사이에 있는 평원이며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에서 보듯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르엘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전쟁터**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란 곳은 이스르엘 남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므깃도**를 말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평원 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높은 언덕인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에 건설되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공격을 3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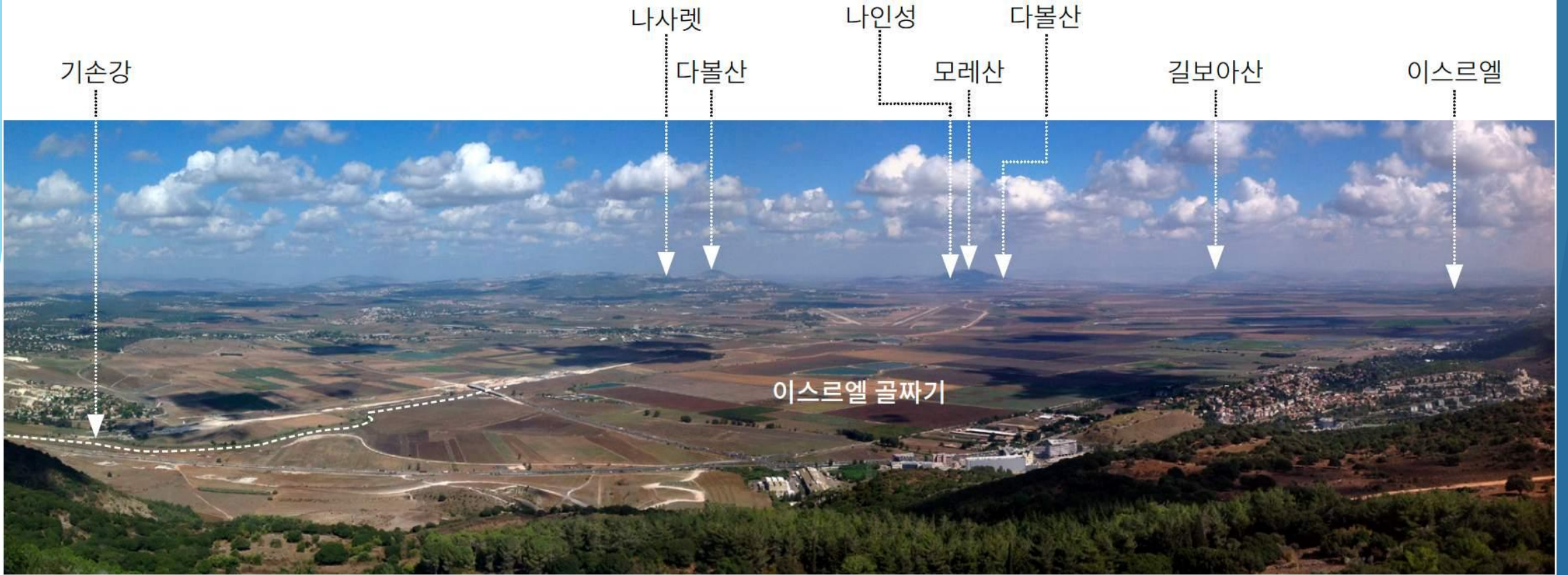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들은 대부분 고지대였다. 따라서 주요 도시들이 고지대에 있었다. 이것이 철기를 사용한 블레셋이 청동을 사용한 이스라엘을 점령 못한 한 가지 이유였다.



ישראל





엘리아 수도원에서 내려다 본 이스라엘 골짜기



Lower Galilee

Mt. Tabor

Hill of Moreh

Mt. Gilboa



# Jezreel Valley

(looking East from Mt. Carmel)

Mt. Tabor

Nazareth

Mt. Moreh

Mt. Gilboa

Ein Harod

Jezreel



Kishon River



길보아산  
쪽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다볼산 쪽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



**므깃도  
근처의  
이스라엘  
평원**



# 사마리아



# 사마리아 폐허



**사마리아  
1915년**



**사마리아  
1925년**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4절에서 하나님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진멸시키고 예후 왕조를 탄생시킨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므리왕조처럼 예 후왕조도 몰락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멸망할 것이라 는 경고입니다.**
-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Jezreel)로 짓게 하고 경고하신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호세아 1:1-11

-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 또 두 번째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Lo-Ruhamah, 사랑받지 못한 자)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사람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 -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음.
-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Lo-Ammi, 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암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 호세아 1:1-11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 그러나 이 이름들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백성이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 혹은 그 기간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  
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하셨고(10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  
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12절)고 하셨습니다.

## 호세아 1:1-11

-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정리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그중 두드러집니다.
-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나 오류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실패나 오류나 실수 없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하십니다, 미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와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원인입니다.
-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회개 여부에 달려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버리거나 벌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 회개는 겸손이고 자기 성찰이며 부단한 ‘오름’(תְּקוּמָה)입니다.

# 표어

오름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A Christian Church  
Seeking Aliyah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눅 9:51)

# 2026

병오년 새해



## 2026년 표어: 오름(알리아)에 대한 묵상

- 성도들이 천국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 그러나 좁은 문으로 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 문에 이를 수 없으니 영광의 길은 과연 험난하고 힘겹기 그지없는 길인 듯합니다. 금메달이나 챔피언의 길이 험난하듯이 말입니다.

## 헤라클레스의 선택

- 헤라클레스가 영웅이 되고, 신들의 성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괴력이나 재능(몽둥이, club) 덕분이 아닙니다.
- 헤라클레스는 자신을 극도로 저주하고 돌게 만들어 처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만든 헤라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처절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도 신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마음을 얻습니다.

- 크세노폰의 <회상록>(Memorabilia)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전한 **프로디코스(c.500 BC)의 우화, '갈림길의 헤라클레스'**에 따르면, 청년 헤라클레스는 꿈에서 갈림길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 넓고 평탄한 길 입구에 선 **'욕망'**이란 이름의 **아리따운 여성**이 자신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장밋빛이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며 손짓하고 있었고, 험난한 고갯길 길 입구에 선 **'덕성'**이라는 이름의 **정숙한 여성**은 자기가 인도하는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월계관이 있는 영광의 길이라며 함께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갈림길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덕성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폐가수스: 천마 →

**제목:** 헤라클레스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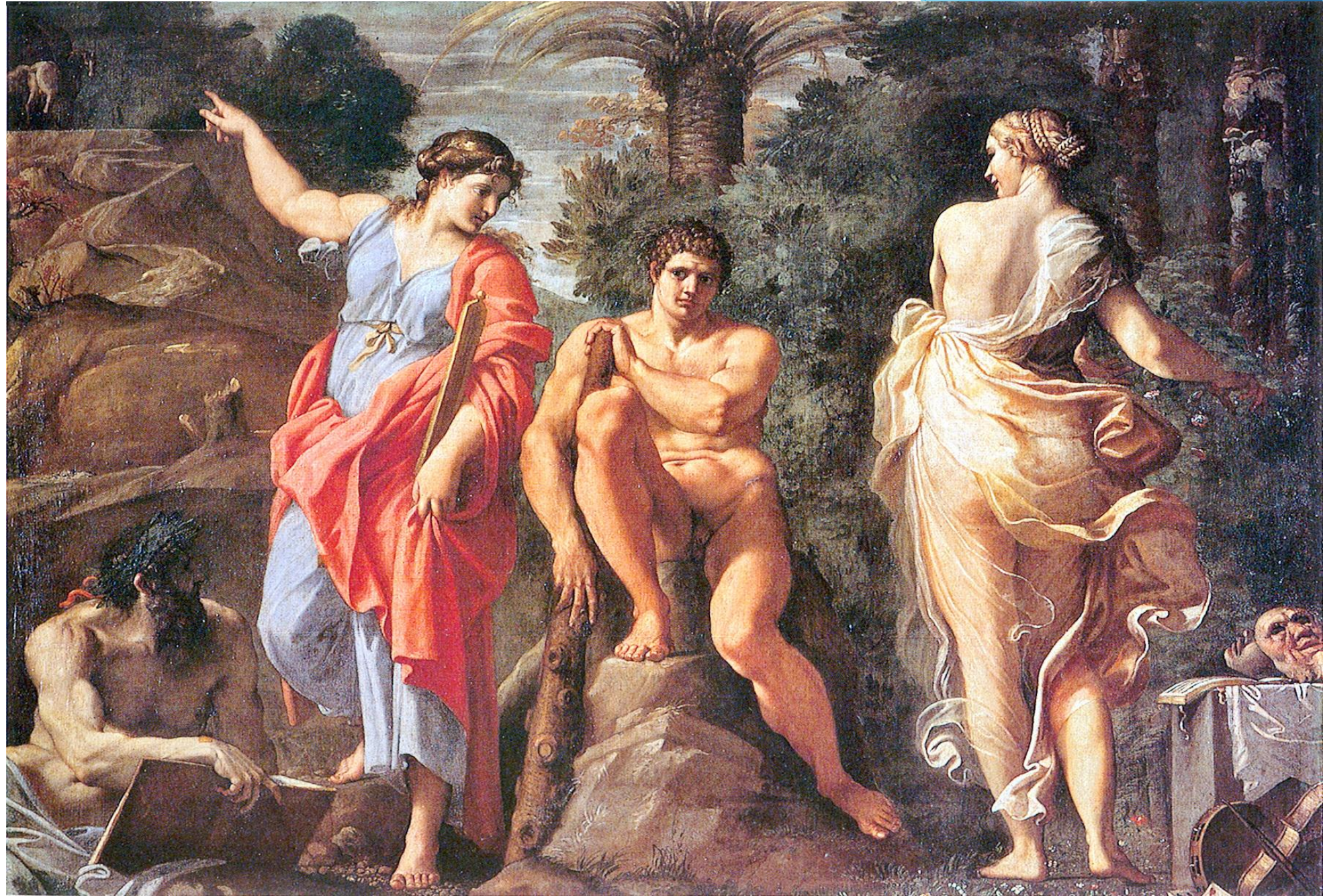
**화가:** 아니발레  
카라치/Annibale  
Carracci

**연도:** 약 1596년

**기법:** 유화

**크기:** 166x237cm

**위치:** 카포디몬테  
갤러리, 나폴리



**그림 속 알레고리:** 우화기록자    덕성(아레테)    헤라클레스    악덕(쾌락)    가면 악기

# 예수님의 선택



Mediterranean Sea

Nazareth •

Capernaum •

Sea of Galilee

Jordan River Valley

JUDEAN HILLS

Mt. of Olives ridge

Jerusalem •

Bethany  
with Bethphage  
somewhere nearby

Jerich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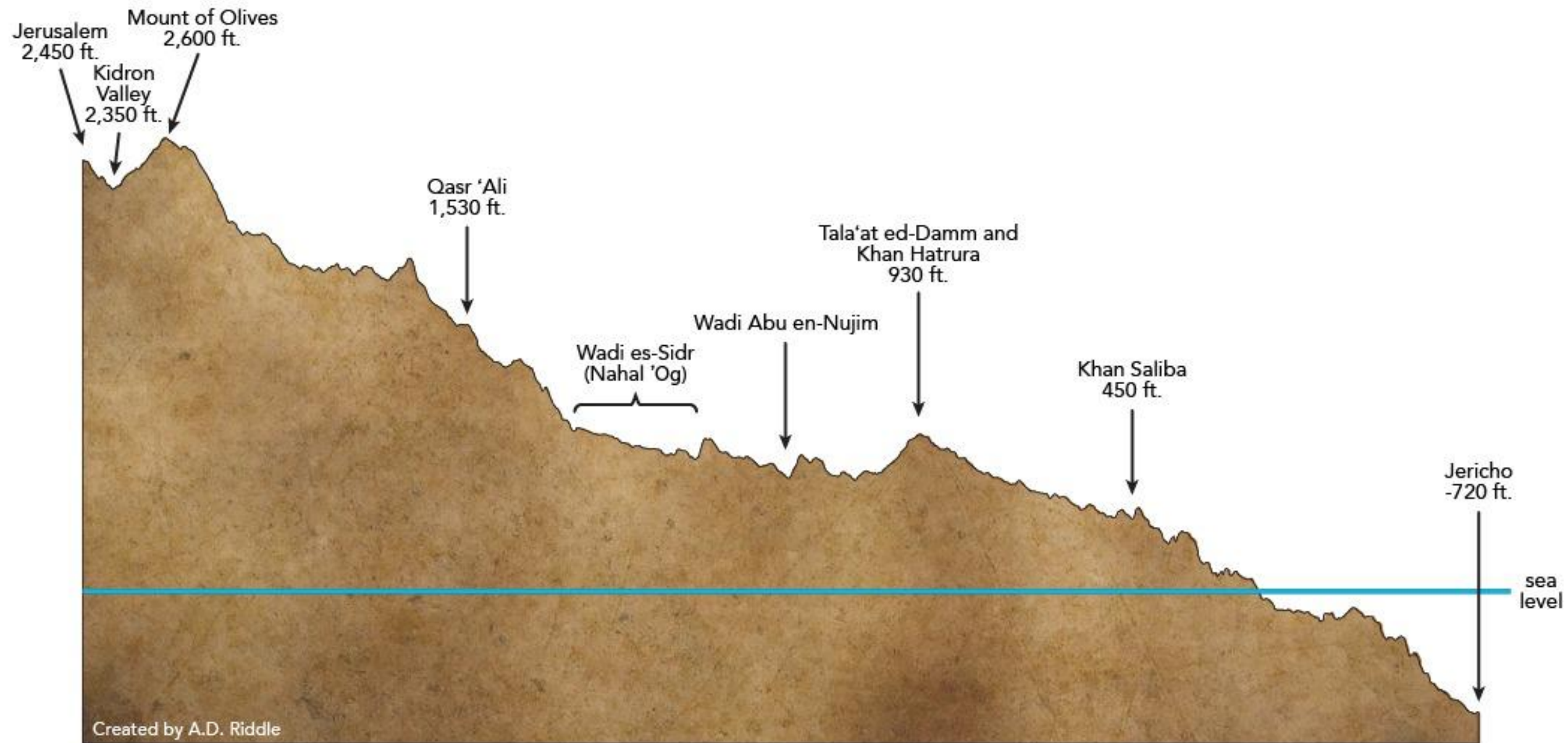
Jericho Road to Jerusalem  
20 winding miles  
(33 km)

LUKE 19 "Jesus...went up into the hills toward Jerusalem."

# 예수님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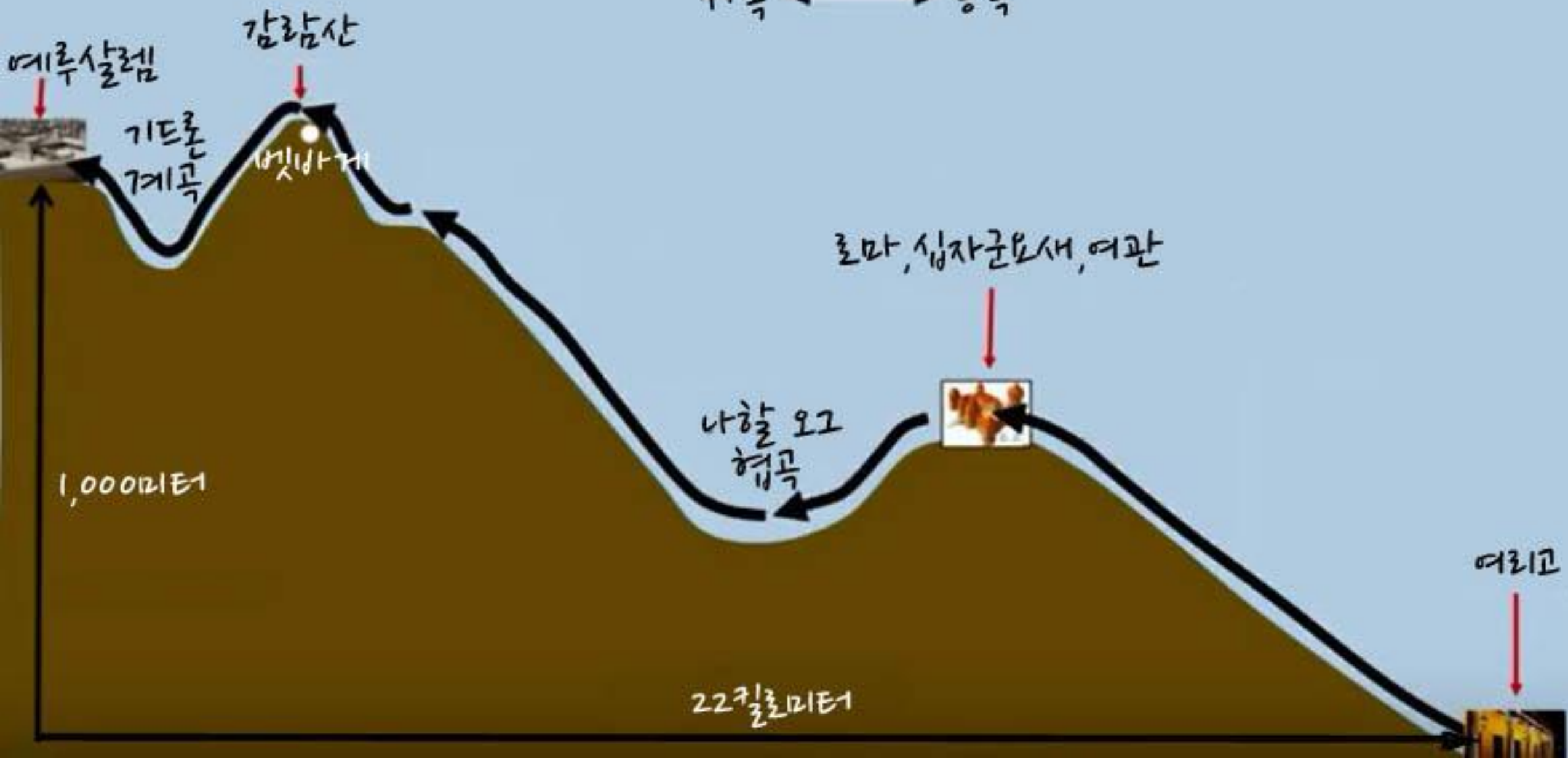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서쪽 ↔ 동쪽



-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 아무리 잘 달리는 명마라도, 출발선이 잘못되면 더 빨리 엉뚱한 길로 가고 맙니다.
- 실력은 방향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속도는 목표가 틀리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며, 성실함도 기준이 잘못되면 헛수고가 됩니다.
-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달리느냐”보다 먼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달리느냐”에 있습니다.
-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여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서 있는 출발선이 바른가?”라고 물으십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2:1-23

-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 [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 호세아 2:1-23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모시)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 호세아 2:1-23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모시)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 호세아 2:1-23

[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 호세아 2:1-23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 호세아 2:1-23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 호세아 2:1-23

- 2장은 회복을 먼저 말한 후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지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회개를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 공포와 저주로 엄포를 놓은 후에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시며 회개를 이끌어내는 모습입니다.
- 게다가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지로 보강(補強)하여 물러설 수 없게 합니다.

- **요한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지옥)의 모습을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천상의 모습은 하늘보좌방과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지복들이고, 지상(지옥)의 모습은 역사의 악순환과 더불어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들과 저주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천상의 지복을 지상(지옥)의 형벌보다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 **마가복음**의 폭풍진압사건에서도 예수님은 폭풍을 만나 혼돈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꾸짖어 안정시키기에 앞서 먼저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깨닫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나무라십니다.
-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란 것을!**

## 호세아 2:1-23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호 2:1).

- 2장 1절은 14-23절에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을 ‘로-루하마’(Lo-Ruhamah, 사랑받지 못한 자)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셋째의 이름을 ‘로-암미’(Lo-Ammi, 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로’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NOT’에 해당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부정**이 긍정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며,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 호세아 2:1-23

-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NOT'를 'YES'로 바꿔주십니다. '아니'를 '그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곧 '사랑받지 못한 자'가 '루하마' 곧 '사랑 받는 자'가 되고,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암미' 곧 '내 백성'이 됩니다.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담이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혈통만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호세아 2:1-23

-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방인 여성들이 포함된 것이나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롬 4:16)으로 이삭을 ‘**약속의 씨**’(롬 9:8)로 표현한 것이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제가 아니라 모계를 중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를 희망(Ha-Tikvah)하고 받은 **약속** 곧 **약속의 내용을 신실하게 믿고 오름(알리야)을 추구하는 것을 일컬어 ‘믿음’(emunah,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최초로 쓰인 것은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 호세아 2:1-23

-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 (pistis, 신뢰)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와 같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나이 75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의 제1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가 제1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고 이집트의 노예 때처럼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제2메시아**가 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길 지금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 호세아 2:1-23

- 이 제2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건재했었고 멸망은 상상조차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호세아에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 선지자 호세아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크게 있었다기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응보)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역사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세아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하고 믿었던(emunah) 것입니다.

## 호세아 2:1-23

-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2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과 주의 재림의 예표(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 제2메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2천 여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pistis) 것이 모든 상실로부터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것들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모르게 되찾고 더욱 넘치게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호세아 2:1-23

### 2. “음행을 제하게 하라”(호 2:2-13).

- 2절은 조국의 안녕을 위해 회개를 외치라는 권면입니다.
- 나머지 3-13절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응보**를 받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호세아의 모국(母國) 또는 조국(祖國)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음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우상숭배 곧 바알숭배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에 비유되었고 바알은 이스라엘의 정부(情夫)에 비유되었습니다.

## 호세아 2:1-23

-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였습니다.
- 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고 거듭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회개하면 천국 시대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써 ‘다가올 세상’(Olam Ha-Ba)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세상’은 ‘모쉬아크’(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꿔서 부르는 호칭)가 오셔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과거 2천 년간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를 발음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 한 것입니다.

## 호세아 2:1-23

- ‘여호와’는 자음 ‘YHWH’에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의 모음을 붙여서 탄생시킨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멸망이후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발음하지 않고 있고,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하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이자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아니고 나라가 강조되었는가 하면 유대교는 민족종교이고 국가차원에서 하나님의 613개 계명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들을 우선시 하거나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돌과 나무에 새기거나 조각하거나 주물로 떠낸 것을 섬기고 절하거나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 3-13절은 그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은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빛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맡기신 것들을 모두 되찾고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간 주셨던 건실한 경제, 튼튼한 국방, 자유와 평화, 왕권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까지 모든 것을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대국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망하며 적국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 3.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호 2:14-23).

- 14-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신 것입니다.
- 1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에서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에 위치한 골짜기로 유다의 북쪽, 베냐민의 남쪽 땅이 맞닿는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전리품을 감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묻힌 장소**입니다(수 7:24-26).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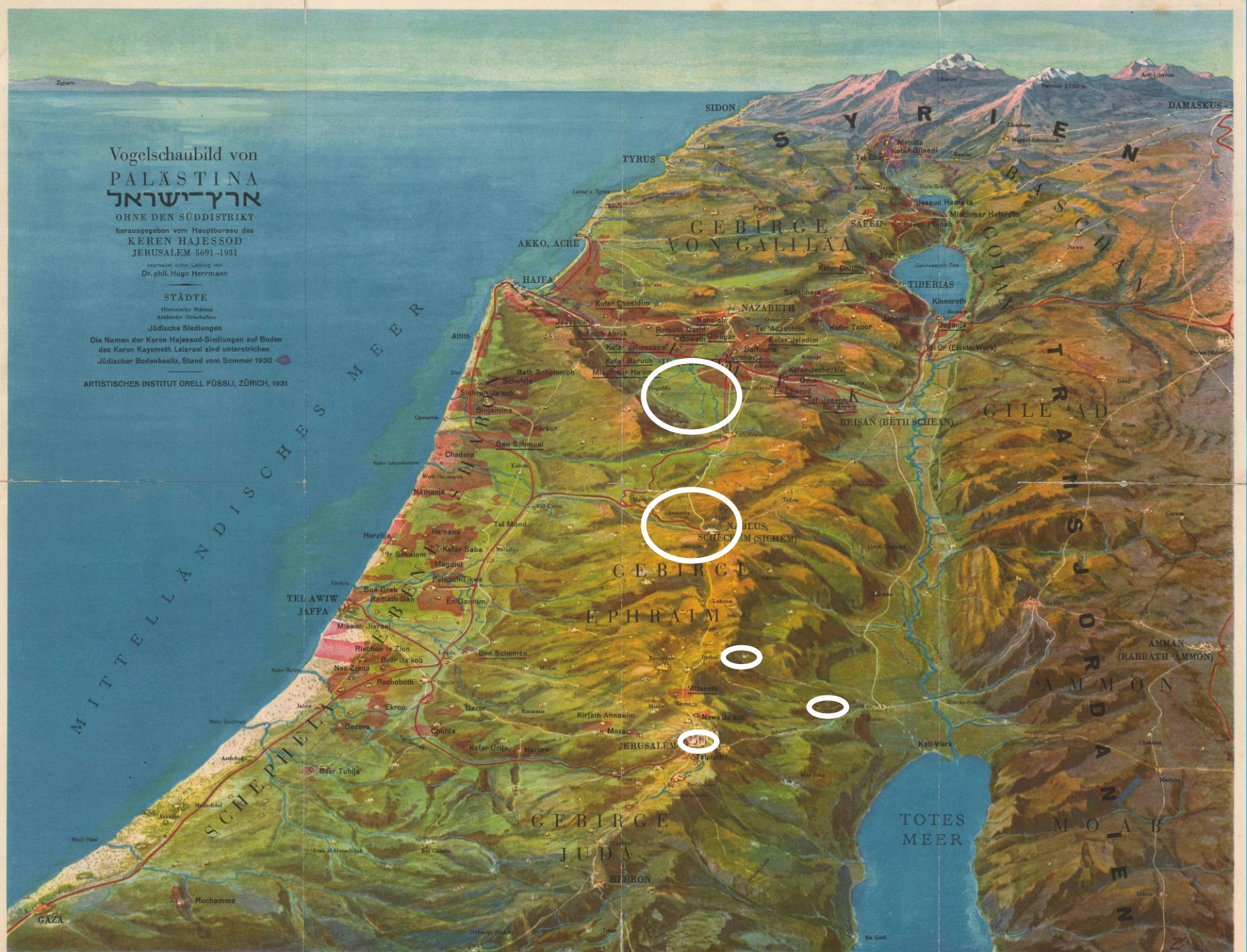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가나안시대를

개방한 관문이었기 때문

## 호세아 2:1-23

- 이 말씀은 메시아시대 곧 다가올 세상(올람 하바)를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에덴동산시대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같은 세상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 **아골 골짜기**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묻힌 곳이었는데(수 7:24-26; 겔 37:1), 호세아보다는 조금 늦은 그러나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소떼가 눕는” 풍요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사 65:10).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괴로운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켈트



Jerusalem

벤엘

아이

Good Samaritan  
Inn

Wadi Qi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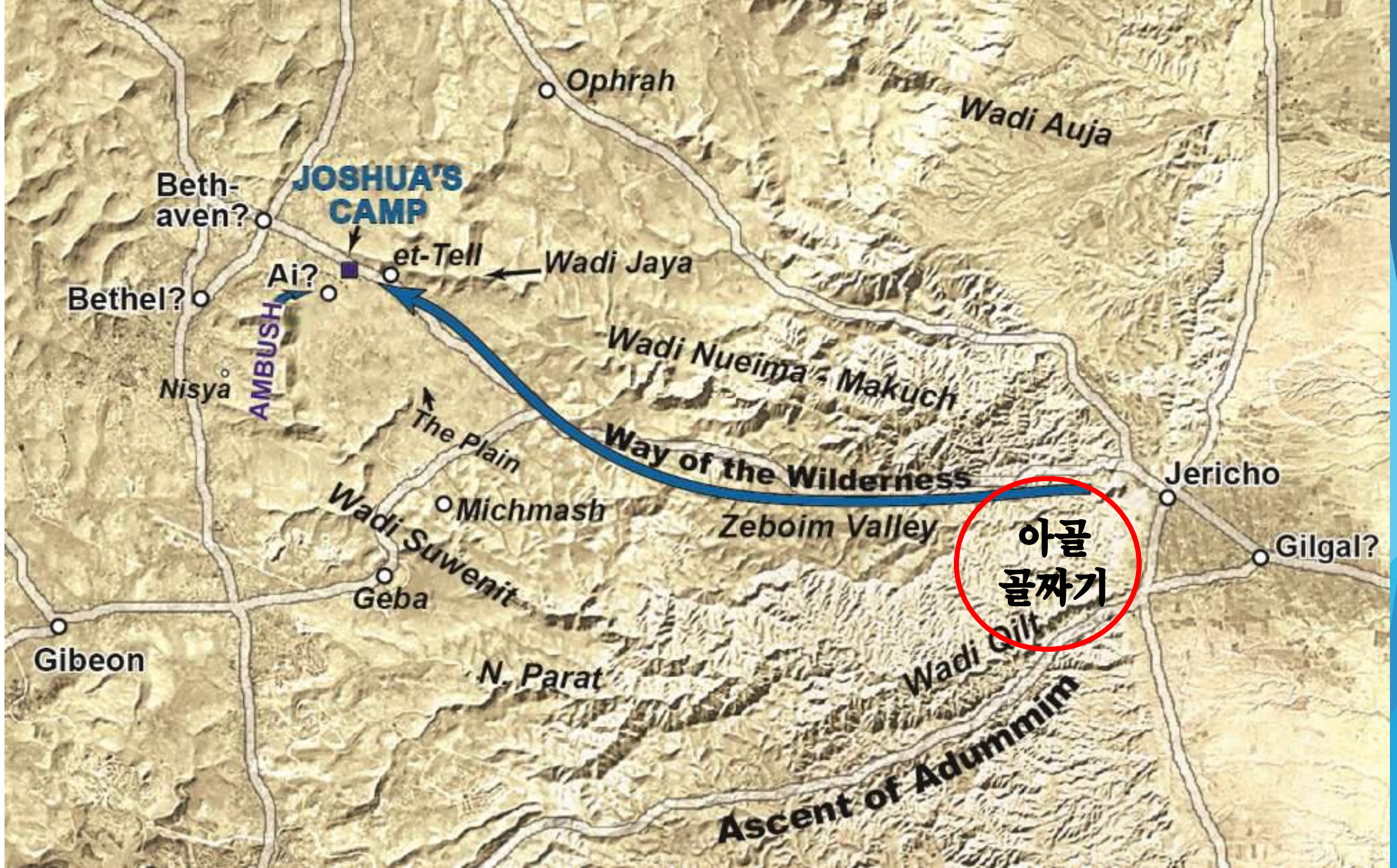
Ascent of Adummim

Cypros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켈트

Herodian Palaces  
In Jericho





예루살렘

# 아이(Ai)성으로 추정되는 '키르벳 엘 마콰티르'와 '엣 텔'

**Bethel**



**Ai - Khirbet el-Maqatir**



**El-T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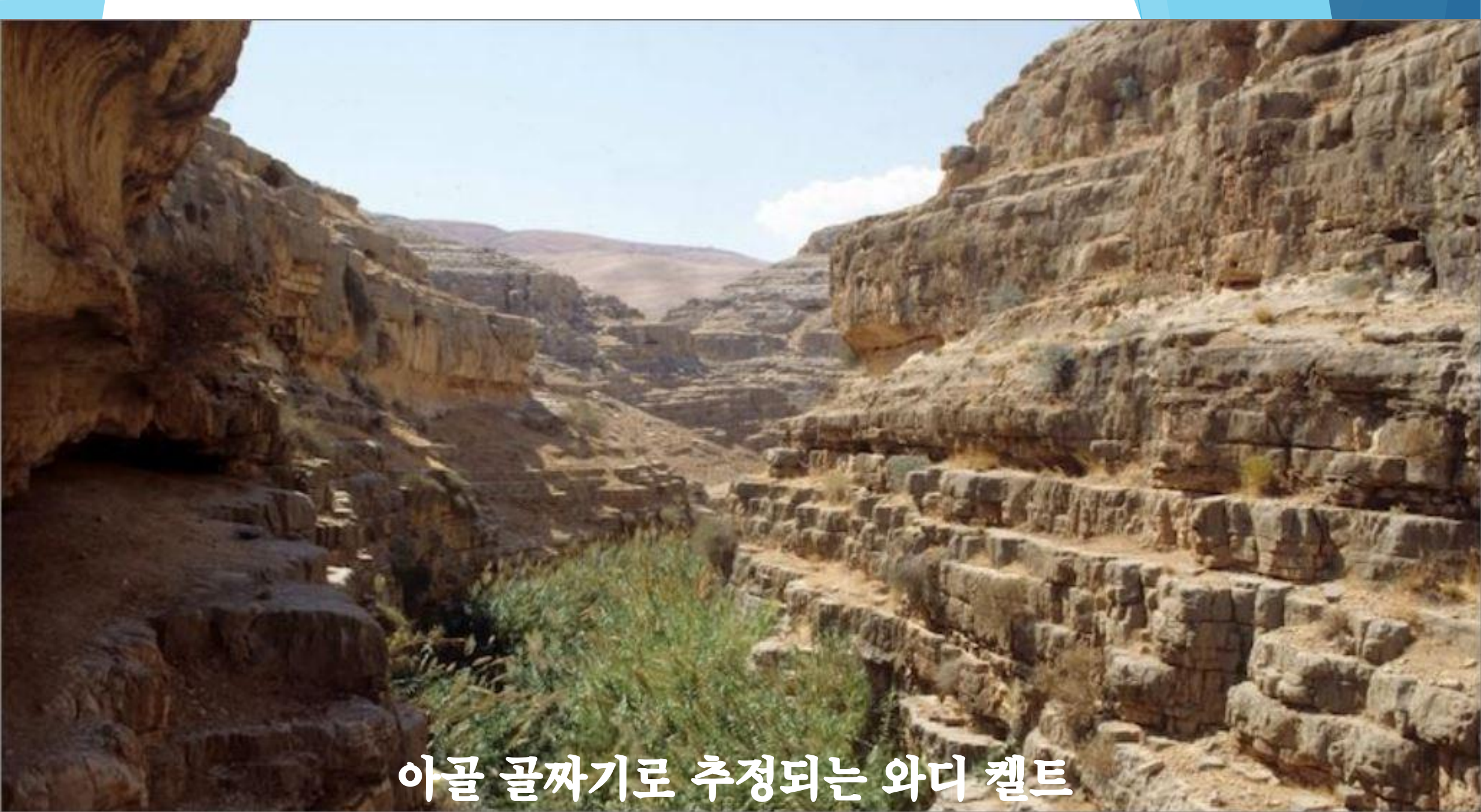
여호수아가 창 끝을 아이성으로 향하여 공격신호를 보내는 그림

# 아이(Ai)성의 왕을 성문 어귀에 묻은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켈트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켈트

## 호세아 2:1-23

-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 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 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인 시라 하리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2장에서 천명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맞닿아 있습니다.
-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 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니...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가 담긴 직후인 1800년 초에 미국 서부(오하이오 강 주변) 개척지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종교개혁가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윌터 스콧은 다섯 손가락 실천이란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 다섯 손가락 실천이란 첫째 믿고, 둘째 회개하고, 셋째 신앙고백하고, 넷째 침례 받고, 다섯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신앙고백은 믿음의 내용을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회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것이고, 침례는 증인들 앞에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거듭나는 구원의 표입니다(벧전 3:21).
-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주 동거하게 하십니다.
-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뤄집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메시지는 성경 66권 전체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 겸손한 마음으로 오름을 추구하는 성도님께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Jesus is our way-maker and miracle worker.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3:1-5

-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전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3장은 다섯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장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진액이 담겨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1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아내 고멜을 되찾아 오며 느낀 아픔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절절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간절한 애정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애정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고멜의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과 하나님과의 언약(하나님의 계명)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준비하신 값진 선물, 곧 '최후 승리', '최후 영광', '최후 금관'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 그것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5절)는 말씀이자 성도들의 '그 희망'(Ha-Tikvah)의 성취입니다.

## 호세아 3:1-5

-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은 각각 다른 행위가 아니라 동일한 행위입니다. 바알신 제의(祭儀)에서 음행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건포도 과자”**는 포도주가 그렇듯이 제의에 쓰였을 뿐 아니라, **최음제**(aphrodisiac)를 뜻한 것일 수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NIV에는 건포도 과자앞에 **“신성한”**(sacred **raisin cakes**)이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유대교인들이 비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와 포도제품들의 사용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카샤롯은 비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 포도주스, 포도주스로 단맛을 낸 과일음료와 과일 맛 음료, 심지어 베이킹파우더의 사용도 금합니다. **포도가 이방종교 특히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와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호세아 3:1-5

-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를 틀에 넣고 압축한 케이크를 말합니다(아가 2:5,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 건포도 과자는 고대 근동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다산과 풍요 의식(예: 아스다룻, 아세라 제의)에서 그랬다고 합니다(사 16:7).
-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건포도 과자가 축제 기간에 최음제(과학적으로 효능 없음)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되찾고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들에게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혹은 대추야자 과자)과 건포도 과자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낸 것(삼하 6:19)은 부부의 행복한 밤을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건대추야자 과자, 건포도과자=강당強糖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이 해석이 옳든 그르든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세트로 묶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 그러나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이 땅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조차도 사단이 잘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깨끗하게 쓸리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고로 사단(마귀)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 마치 우상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이유와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잠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락이 끝나면 심판이 따른다.

## 호세아 3:1-5

- 이 같은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조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추측컨대 **고멜은 가출하여 지참금을 받고 중혼(重婚)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 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  
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열다섯 개(세겔)와 보**  
**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되 사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  
리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은 세겔 30개에 팔리신 것에 일치  
(추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 보리 1호멜=220L, 1세겔=10~11G, 1세겔=4데나리온
- 일당=은 2~5G=1데나리온=보리 4~6L=한 가족(3~5명)의 하루치 식량
- 보리 1호멜 반(330L)+은 15세겔(150~165G)=은 30세겔 정도
- 노예값=은 30세겔(출 21:32)=120일치 품삯(120일치 가족의 식량)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보리 '한 호멜 반'은 금액으로 은 세겔 열다섯 개에 해당(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은 세겔을 열다섯 개만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절반을 보리로 보상한 것 같습니다.
-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30개의 세겔을 지불한 이유는 고멜의 정부(情夫)가 고멜의 부친이나 고멜에게 지불한 지참금을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지참금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멜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돈을 이스라엘에서는 '모하르'(mohar)라고 불렀습니다(창 34:12, 출 22:16, 삼상 18:25).

- 반대로 여자가 남자 쪽에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이혼을 원하거나 버리기를 원하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정부에게 돌려준 돈의 가치는 은 세겔 30개에 해당되었습니다. **은 세겔 30개는 노예의 몸값 (출 21:32)**이었습니다.
-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짐하며 타일렀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타이르는 말씀**입니다.

## 호세아 3:1-5

-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진단됩니다.**
- **하나는 혼합종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동시대의 이사야,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국제정세**의 흐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민족이 벼랑 끝에 놓였다는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왕국들이 모두 멸망한 것은 이들 예언자들의 정책조언과 회개촉구를 지도자들이 묵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호세아 3:1-5

### 너는 내 백성이라!

- 후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습니다.
-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예언자들의 활동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

**성경의 예언은 권면, 설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배신(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4:1-19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 호세아 4:1-19

[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 호세아 4:1-19

[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 호세아 4:1-19

[13]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벤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 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 호세아 4:1-19

[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18]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쫓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송아지, 황소  
우상의 형상.

이스라엘의  
남녀가  
이들에게  
제사를 바친  
후 음복하고  
음행함.



## 벧엘 (Bethel, בית אל)

어원: 베이트(בית, 집) + 엘(אל, 하나님).

의미: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특징: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신앙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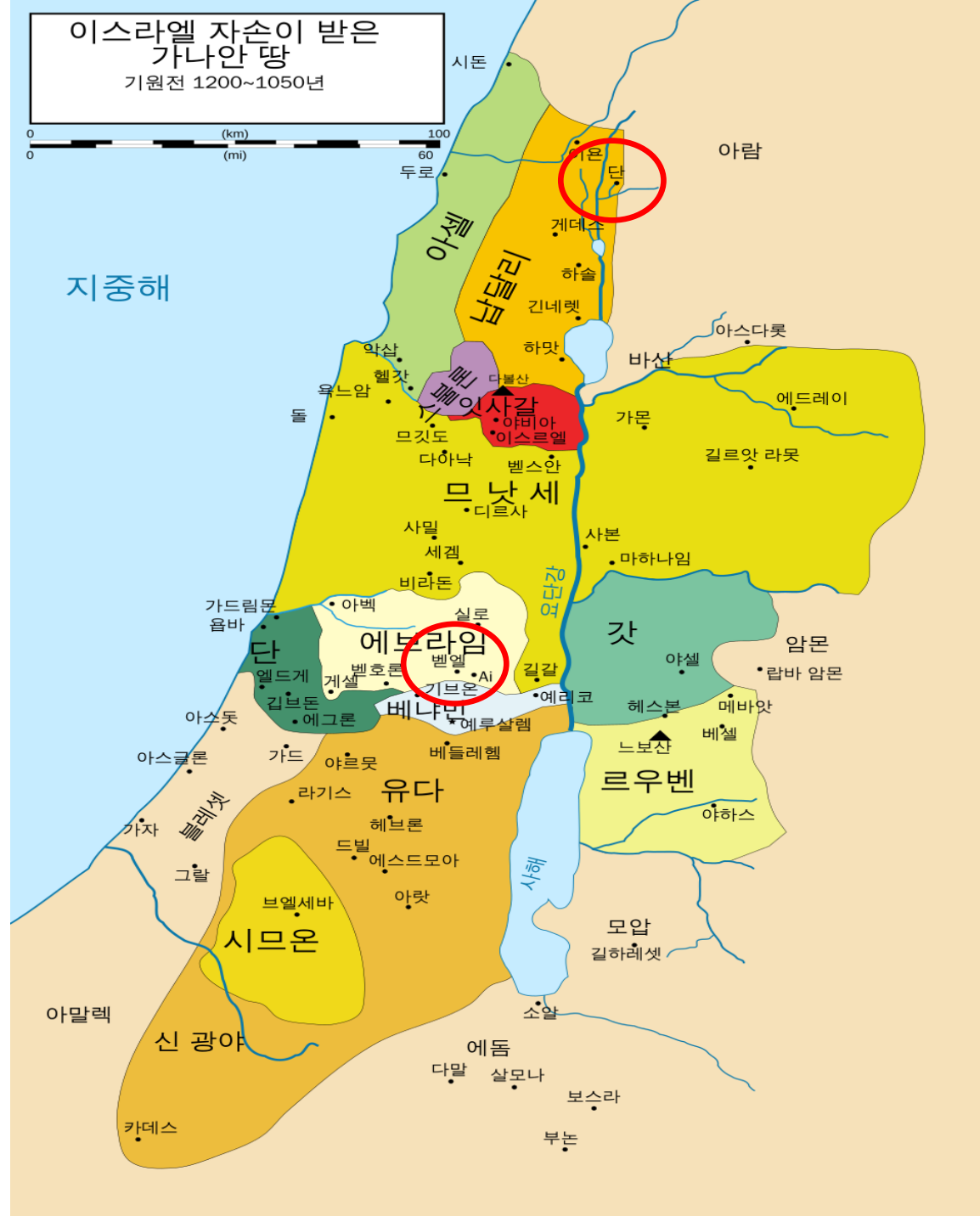
## 벧아웬 (Beth-Aven, בית און)

어원: 베이트(בית, 집) + 아웬(און, 허무, 우상, 죄악).

의미: **우상의 집** (House of Vanity/Idol).

특징: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 숭배하게 된 후, 호세아 등이 벧엘을 비판적으로 부른 이름.

# 단과 벤엘의 위치



**벤엘의 유적지  
(19세기)**



# 야곱의 돌베개, 여로보암의 성전터



돌베개

여로보암의 성전터

# 야곱의 돌베개



# 청동기 시대, 여로보암의 베델 성전터, 성벽 폐허





(C) BibleWalks.com

청동기 시대, 여로보암의 베델 성전터, 성벽 폐허

**야곱의 꿈(창 28:12-19)  
구스타브 도레  
Gustav Dore,  
프랑스 화가, 1832-1883**



# 북이스라엘의 단 성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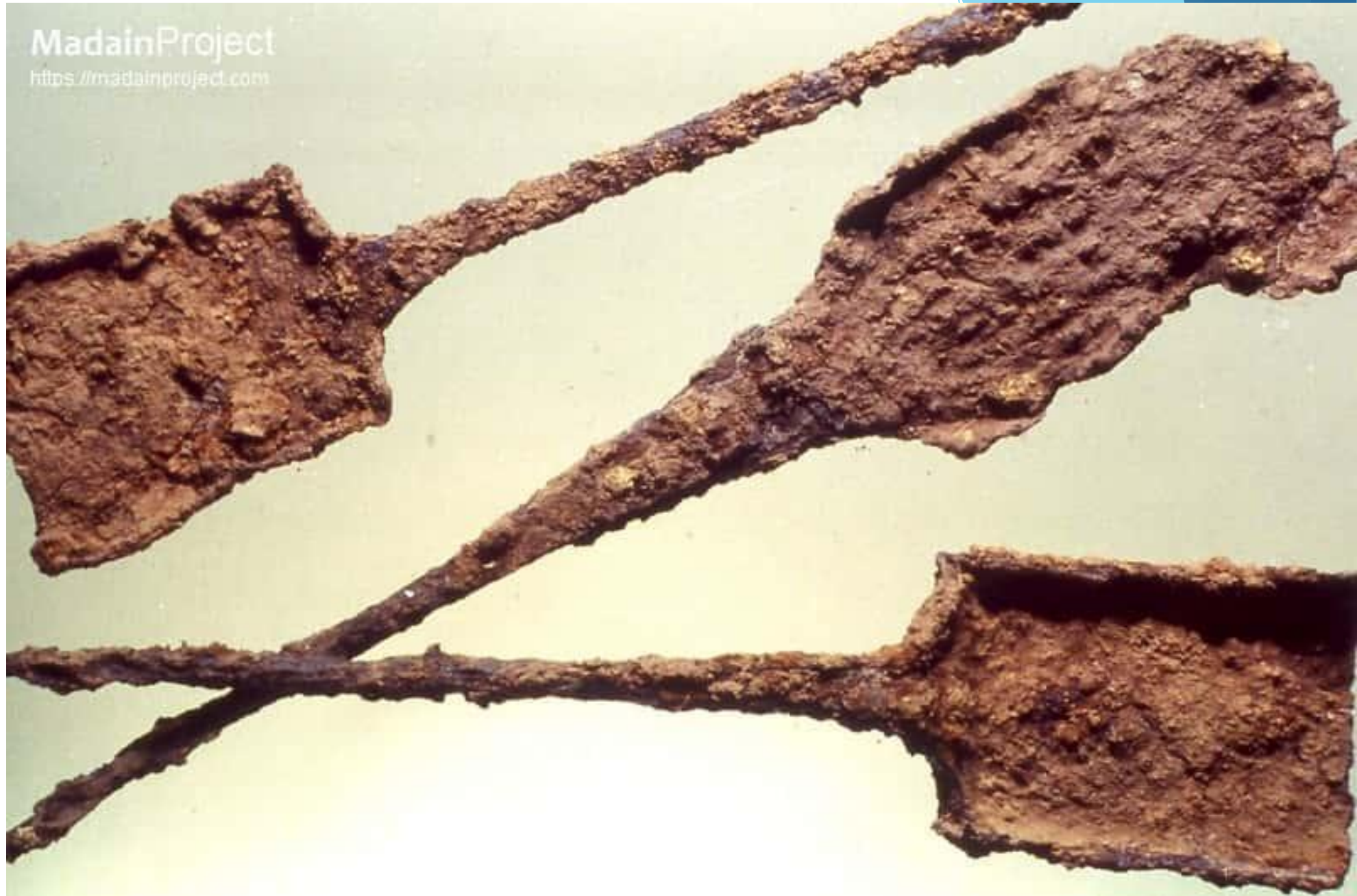


북이스라엘의 단 성소

# 단 성소의 황금송아지 제단



**단에서 발굴된  
제단 기구**





**헬라어와  
아람어로 된  
비문:  
“조일로스는  
단 지파에  
계신 신께  
서원하였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혼합종교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같은 문제점이 상존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특히 더 심했습니다.
-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단 하나 예루살렘의 성전산(모리아산)에 세워진 것만 합법으로 인정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유다의 종교이념이었습니다.
-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 중앙 성소는 북이스라엘의 땅에 브라임 산지의 '실로'에 있었고, 성막과 법궤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 법궤는 주전 1102년경 아벡 전투 때 블레셋에 빼앗겼고 일곱 달 정도 블레셋 성읍들(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있다가 남유다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삼상 6장).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법궤(신궤)가 이동함에  
 따른 왕권의 이동:  
 사울에서 다윗으로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충돌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간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북 왕국에서 남 왕국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사망한 직후 왕국이 분열되었고, 법궤가 없는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대신할 하나님의 발등상(보좌)으로 황금송아지를 최남단 벤엘과 최북단 단 두 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 송아지 또는 황소는 본래 엘과 바알 및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으므로 백성은 알게 모르게 엘과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그런 행위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의식이 점차 흐려졌을 것입니다.
- 그 결과 백성은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EI)과 어머니 신 아세라(Asherah)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바알(Baal)과 아스다롯(Astaroth)과 아낫(Anath)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 아스다롯과 아낫은 바알의 누이들이자 부인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정액)와 폭풍의 신이며, 아스다롯은 땅(자궁)의 풍요와 생식의 신이었습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그리고 기우제 성격의 바알종교 의식의 절정은 바알 신 부부를 성적으로 자극시켜 척박한 땅에 비(정액)를 내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배자들이 남녀 성창들과 간음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육적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 4장은 바알산당의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1.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호 4:1-5).

-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십계명 중에서도 1-2계명,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1-5절의 하나님의 응보는 이들 계명을 어긴 결과입니다.
-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상(形狀)들로 열 가지 ‘세피롯’(sefirot 대상 29:11)을 말하곤 합니다.

## 호세아 4:1-19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이 열 가지 가운데 **마지막 열 번째가 유일한 물질세계인 ‘나라’(Malkut)**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모두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5절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에서 “네 어머니”는 ‘나라’(Malkut)를 말하고 “멸하리라”는 계명을 어긴 죄값을 말합니다.
- ‘토라’(torah) “계명과 규례”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이 토라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실천종교입니다.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깨진 ‘나라’(Malkut)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호세아 4:1-19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2.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10).

- 4-6절은 1-5절의 연속입니다.
- 개인이든 국가든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등 따습고 배부르고 잘나갈 때는 사람들이 애써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합니다.
- 1980년대까지 춥고 배고팠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교의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 들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국이 되고 GNP 3만 불을 넘긴 시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왕국이 너무 잘 나간 때문이었습니다.

## 결혼 동맹으로 멸망

- 솔로몬은 이웃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동맹을 맺었습니다.
- 공주들은 자기 나라의 신들과 사제들을 대동하였고, 솔로몬은 그들이 머물 집과 그들의 신들을 모실 성소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신들의 성소들에 포위당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 예후가 무너뜨린 오므리왕조때도 북이스라엘은 탄탄한 국방과 경제로 인해 국제무대에 이름을 떨쳤고, 주변 나라들과 결혼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왕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촉발시킨 예후 혁명 때 멸족**되었습니다. 반면에 혁명으로 정권을 쥔 예후왕조는 오므리왕조와는 정 반대로 **우상숭배하는 주변국들과 외교를 단절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국력이 쇠퇴**하였습니다.

## 호세아 4:1-19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그러다가 요아스 때 국력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호세아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시 사치와 방탕과 혼합종교가 문제되었습니다.**
- 향락과 방탕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 **신명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서 쇠망(衰亡)의 시점을 우상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흥성(興盛)의 시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 호세아 4:1-19

### 3.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호 4:11-19).

-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에서 “나무” 혹은 “막대기”는 ‘아세라’ 목신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열왕기 상하에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 우상과 아세라 상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왕상 14:23) 여기서 아세라 상은 목신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승 곧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한 쌍을 수호신으로 마을 입구에 세웠던 것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우상 숭배자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곳에 목상들이 있었습니다(왕하 16:4; 17:10). 또 ‘엘’(El)이 가나안의 최고신이었다면, ‘아세라’(Asherah)는 ‘산당’ 그 자체였다고도 합니다.
- 호세아는 13절에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 열왕기서에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 호세아 4:1-19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그런데 호세아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말하면서 그 나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하던 곳이 ‘산꼭대기’나 ‘작은 산 위’였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가 다름 아닌 성창들과 몸을 섞는 러브 모텔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실제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때의 음행은 기우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15절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벤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에서 “벤아웬”은 사악함의 집이란 뜻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의 집 ‘벤엘’이 사악함의 집 곧 ‘벤아웬’으로 바뀌놓고 말았습니다.
- 빛을 흑암으로 질서를 혼돈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뀌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뀌놓고 말았습니다. 벤엘은 북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유일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에 다 하나님의 발등상(보좌)인 법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곳입니다. 호세아가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을 '벤아웬' 곧 사악함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벤엘이 혼합종교의 온상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변하여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좇아가면 하나님의 집이 변하여 사악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고, 질서가 변하여 혼돈이 되며,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됩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북이스라엘의 혼합종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일왕국을 쫓아내면서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남단 벰엘과 최북단 단의 성소에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황금송아지를 세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의 법궤가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이었으므로 벰엘과 단의 성소에 법궤 대신에 황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 송아지(황소)는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바알 및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애굽이후 백성은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여호와를 혼용(混用)하고 있었습니다.

## 호세아 4:1-19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북이스라엘이 출범하면서 벤엘과 단 성소들에 세워진 황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치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예후 때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발등상(보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여호와를 볼 수 없으므로 황금송아지만 보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인 법궤는 성전 지성소에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일 년 중 하루 대속죄일(보통은 우리나라 추석 5일전) 때 두 번 정도 법궤 앞에 설 수 있었을 뿐입니다.

## 호세아 4:1-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세라 목상과 바알과 아스다롯에 끌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산당에서는 성창(聖娼)과 몸을 섞을 수 있는 나무그늘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 이로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성령(聖靈)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갔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바알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5:1-15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을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 호세아 5:1-15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리 같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벤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9]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 호세아 5:1-15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호세아 5:1-15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전져낼 자가 없으리라.

[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광대하시고 무조건적이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나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이며 순수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디로만 설명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많은 사랑과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동거의 선물을 받습니다.
- 믿음과 신앙고백이 하나로 연결되고 회개와 침례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믿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마음에 우상을 두는 행위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겠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효험이 좋은 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1절 전반 절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왕상 12:31, 대하 11:13-17, 13:9)이었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을 퇴출시키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아마도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이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세운 성소들에서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응보를 예고하시며 가장 먼저 지칭한 자들이 바로 이들 가짜 제사장들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과 초막 절 절기를 한 달 늦춘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모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이외의 산당은 불법 성소였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성막과 법궤를 안치한 중앙 성소가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중앙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음으로써 폐쇄된(c. BC 1094) 이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c. BC 960) **임시 성소(성막)**가 베냐민 지역에 있었을 뿐입니다.
- 먼저 **'놉'**에 있었고(c. BC 1094-1018, 76년간), 대제사장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이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엘리의 증손자)으로부터 거룩한 떡(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받았습니다(삼상 21:1-6). 성막은 이 일이 있고나서 얼마 후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습니다(c. BC 1018).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기브온에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던 성막과 늦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대하 1:2-6).
- 블레셋 지역에서 되돌아온 **법궤**는 ‘기랴여아림’에 대략 92년간(c. BC 1093-1001) 있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c. BC 1001). 이곳은 베냐민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써 유다지파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성막과 법궤가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두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의 직접적인 충들을 완충하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로 모두 옮겨졌고,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됨으로써(c. BC 960),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에브라임과의 충돌 없이 베냐민을 거쳐 모두 남유다로 옮겨졌습니다.
-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성소, 불법 제사장, 불법 절기라는 죄를 범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백 년 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을 거듭 예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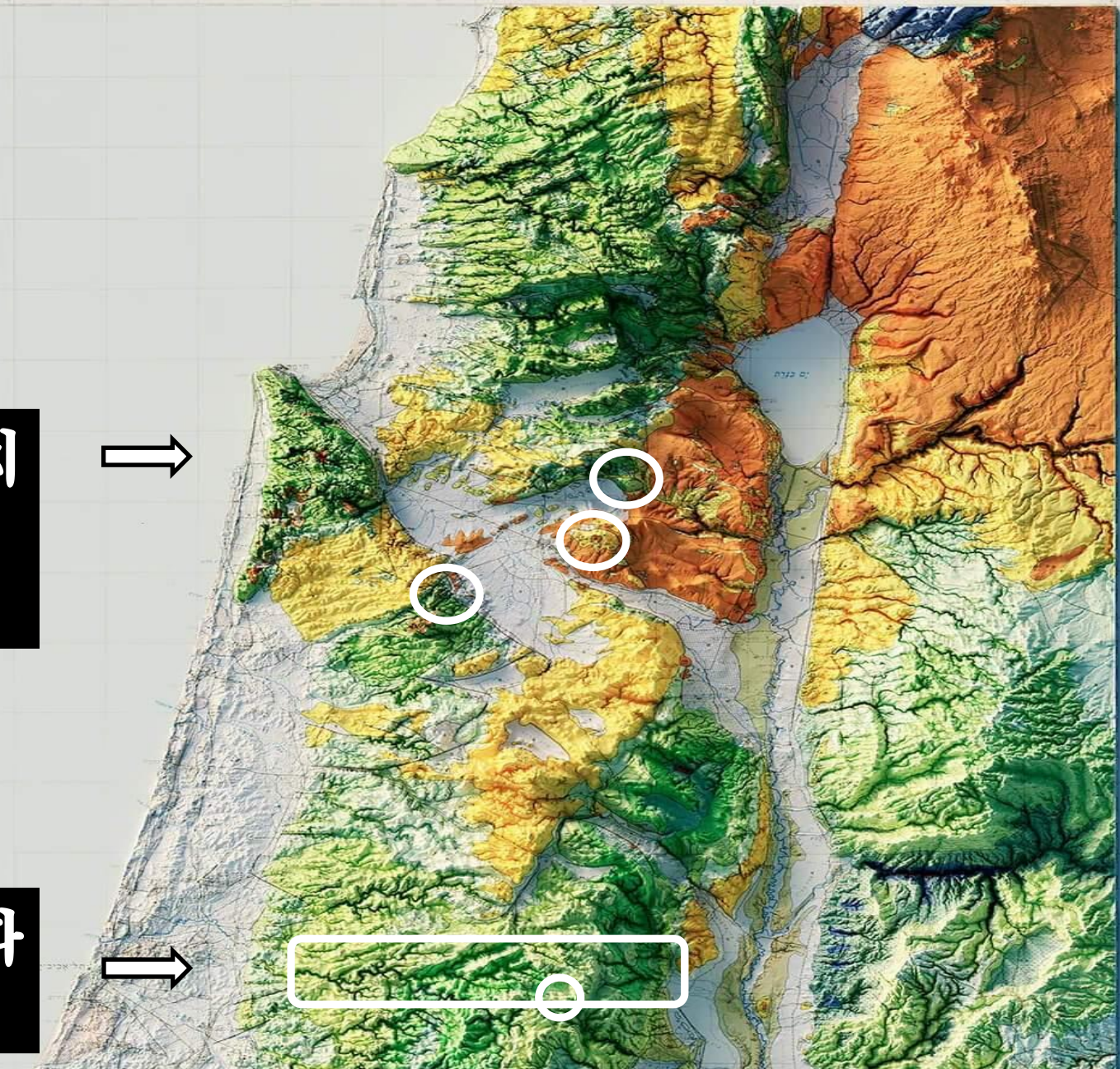
ישראל  
מפה גיאולוגית  
ISRAEL  
GEOLOGICAL MAP

Quaternary	קוארטן	1:10000
Upper Pleistocene - Recent	פלסטוקן עליון - מודרני	1:20000
Upper Pleistocene	פלסטוקן עליון	1:50000
Lower Pleistocene	פלסטוקן תחתון	1:100000
Miocene-Oligocene	מיאוקן-אוליגוקן	1:200000
Upper Cretaceous	קרטיקון עליון	1:500000
Lower Cretaceous	קרטיקון תחתון	1:1000000
Upper Jurassic	יורסיקון עליון	1:2000000
Lower Jurassic	יורסיקון תחתון	1:5000000
Upper Triassic	טריאסיקון עליון	1:10000000
Lower Triassic	טריאסיקון תחתון	1:20000000
Upper Permian	פרמיאן עליון	1:50000000
Lower Permian	פרמיאן תחתון	1:100000000
Upper Carboniferous	קארבון עליון	1:200000000
Lower Carboniferous	קארבון תחתון	1:500000000
Upper Devonian	דבון עליון	1:1000000000
Lower Devonian	דבון תחתון	1:2000000000
Upp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עליון	1:5000000000
Low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תחתון	1:10000000000
Upp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עליון	1:20000000000
Low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תחתון	1:50000000000
Upper Cambrian	קמבריאן עליון	1:100000000000
Lower Cambrian	קמבריאן תחתון	1:200000000000
Upp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עליון	1:500000000000
Low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תחתון	1:1000000000000
Upp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עליון	1:2000000000000
Low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תחתון	1:5000000000000
Upper Devonian	דבון עליון	1:10000000000000
Lower Devonian	דבון תחתון	1:20000000000000
Upper Permian	פרמיאן עליון	1:50000000000000
Lower Permian	פרמיאן תחתון	1:100000000000000
Upper Carboniferous	קארבון עליון	1:200000000000000
Lower Carboniferous	קארבון תחתון	1:500000000000000
Upper Devonian	דבון עליון	1:1000000000000000
Lower Devonian	דבון תחתון	1:2000000000000000
Upp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עליון	1:5000000000000000
Lower Silurian	סילוריאן תחתון	1:10000000000000000
Upp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עליון	1:20000000000000000
Lower Ordovician	אורדוביזיאן תחתון	1:50000000000000000
Upper Cambrian	קמבריאן עליון	1:100000000000000000
Lower Cambrian	קמבריאן תחתון	1:200000000000000000

다불산, 위치  
모레산,  
므깃도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Choose a date scheme

# EPHRAIM

# GAD

# DAN

**북왕국의 대표지파**

Bethel

Mizpah

Rama(h)

Gibeah

Gibeon

Kiriath-jearim

# BENJA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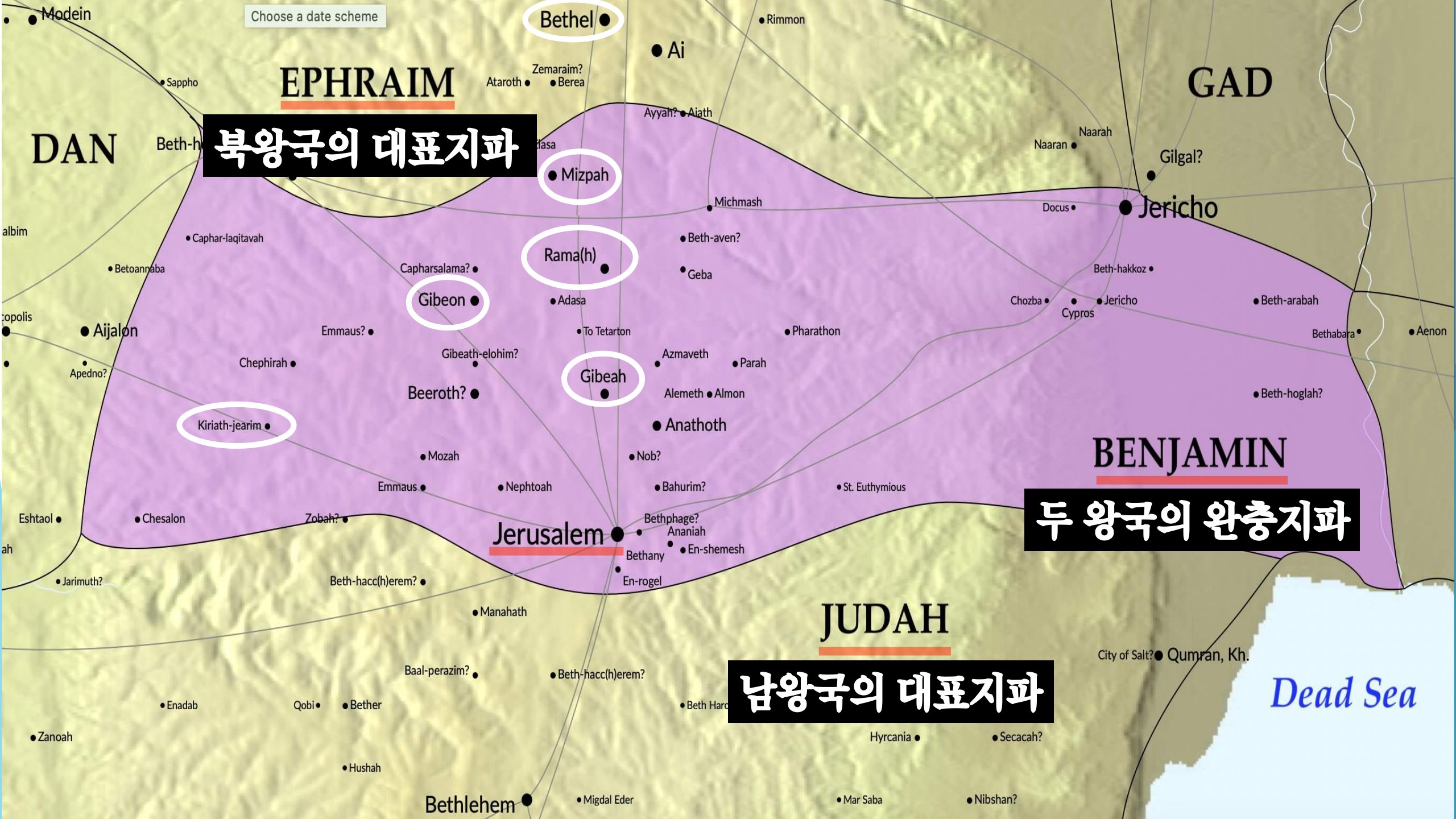
**두 왕국의 완충지파**

Jerusalem

# JUDAH

**남왕국의 대표지파**

Dead Sea



# 법궤이동경로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1절 후반 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는 한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고 구원하셨던 장소들이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그물망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빛이 어둠으로 질서가 혼돈으로 생명이 죽음이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활동무대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 호세아 5:1-15

-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에벤에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적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삼상 7:5-12).
- 또 **다볼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해발 588미터 산입니다.
-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청동 문명권에 속했고,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맞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은 교묘히 약한 고리이자 두 거대 지파에 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 베냐민을 점령하여 기지로 삼고 호시탐탐 에브라임과 유다를 괴롭히며 실효적 지배를 꾀하였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이 전쟁에 블레셋이 동원한 철병거가 무려 900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의 무기는 고작 농기구 정도였습니다. 사울 때를 보면 철로 베틀 칼이 고작 한 자루나 두 자루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 **승전의 원인**을 몇 가지로 짚어보자면,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대가 높은 다불산에서 블레셋을 맞아 싸웠습니다.

## 호세아 5:1-15

- 둘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의 한 소절인 5장 4-5절 곧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에 연결됩니다.
- 블레셋의 병거들이 산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어마 무시한 천둥과 번개와 폭우에 900마리의 말들이 놀라 혼비백산하며 뒤엉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추격전을 펼쳐 블레셋을 전멸시켰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이 놀라운 결과는 힘이나 능이나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삿 4:3)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장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떠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울무가 되고 그물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훗날 다볼산은 예수님께서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구한 두 영웅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심으로써 자신이 오실 자 메시아임을 증명한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울무와 그물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Nazareth Ridge

Mt. Tabor

Hill of Moreh

Nain

Megiddo

Photo: Bibleplaces.com



# 므깃도



# 모레산

나인





다볼산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Tabor, 588m)산  
예수님의 변화체험이 있었던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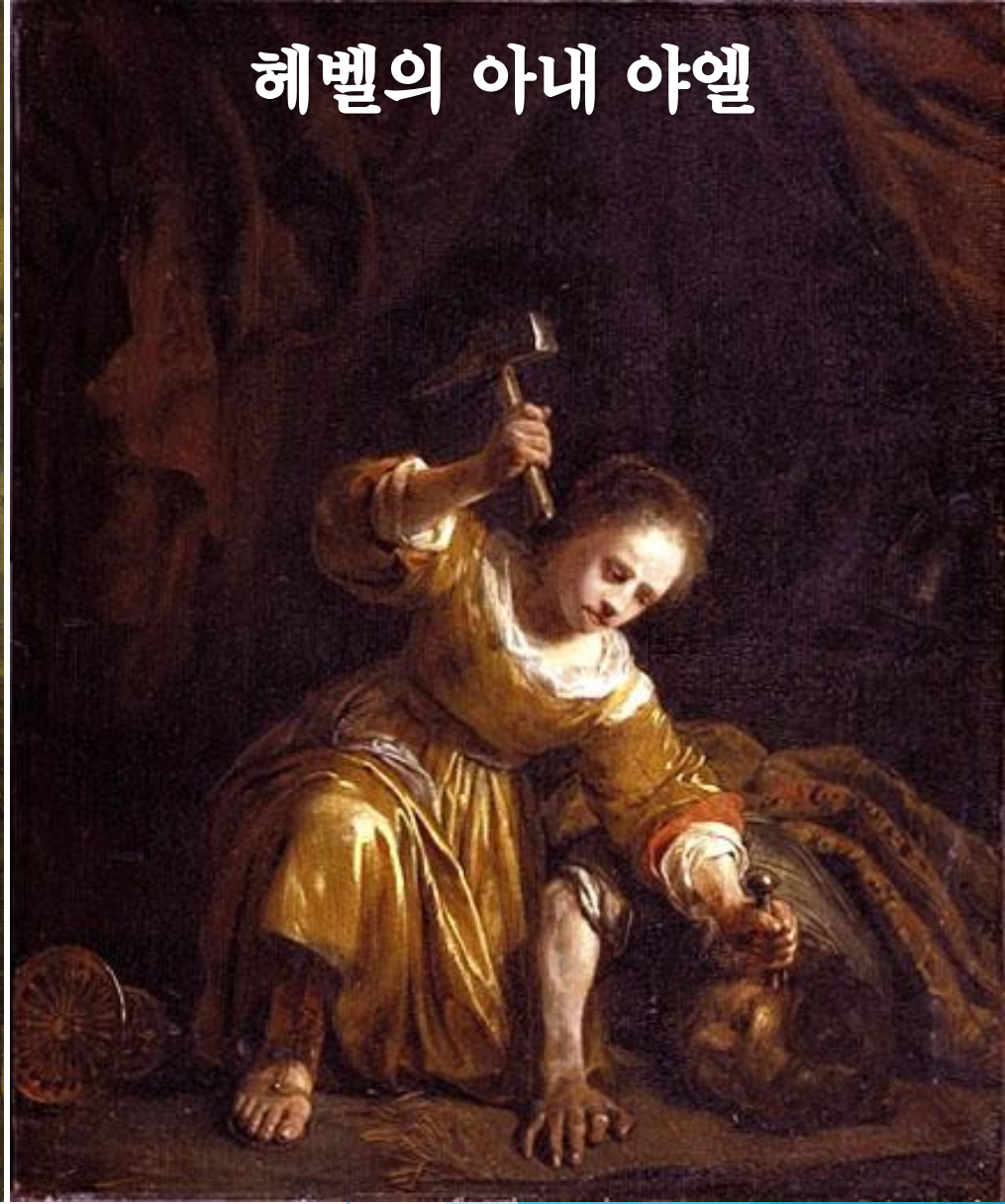
므깃도, 모레, 다불은 해안도로가 이스라엘 평원을 통과하는 길목들이었다.





**‘시스라의 패배’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루카 지오르다노 Giordano, Luca c. 1692

**헤벨의 아내 야엘**



**‘시스라의 최후’**  
얀 드 브레이 Jan de Bray, 1659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 그런데 그 교만이 다름 아닌 회개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혐오하는 인간’은 오만(Hybris)한 자로서 반드시 신들의 응보(Nemesis)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피그말리온은 신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자신이 조각한 석상을 사람이 되게 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고,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는 신을 무시하고 오만함으로 평소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석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한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절정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그러나 솔로몬 사후 남유다가 내리막을 걷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 멸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사후 쇠락의 길을 걷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였습니다.
-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란 호칭은 북이스라엘을 대체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심히 약하고 힘없는 베냐민을 완충지로 두고 남유다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37번이나 에브라임으로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5:1-15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을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 호세아 5:1-15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리 같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벤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9]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 호세아 5:1-15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호세아 5:1-15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전져낼 자가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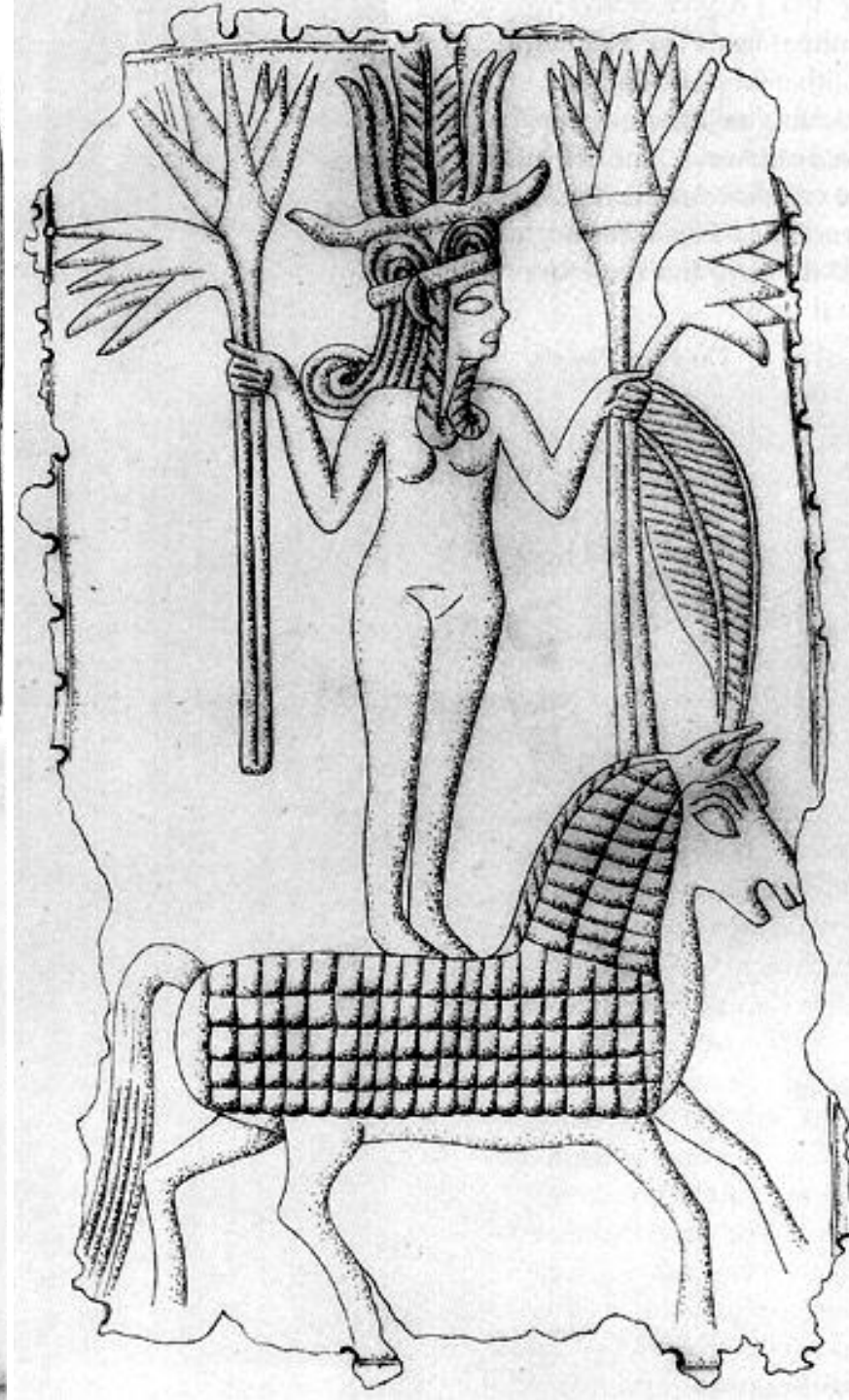
[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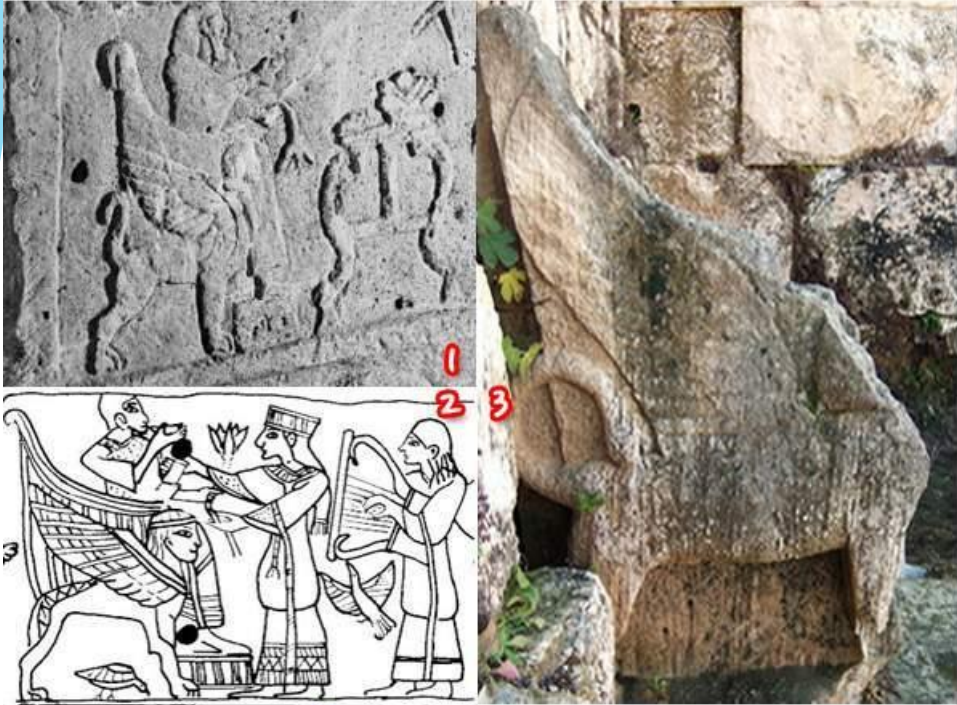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거듭된 말이지만, **우상숭배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족이든 서민이든 노예이든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의 발등상** 혹은 **보좌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근동세계**에서는 **짐승들** 특히 **소가** **신들의 발등상**이었습니다.
- **그 같은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라마수, 스프링크스, 그리핀**은 **국가와 황실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경호 생물 스피ング스를 부조한 의자들과 하나님의 보좌(법궤)  
 1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의 왕 아히롬(Ahirom)의 석관(c. 1000BC),  
 2번은 이스라엘 므깃도에서 출토된 상아음각, 3번은 시돈의 에스문 신전  
 에서 발굴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의 석좌 및 법궤 덮개에 세운  
 케루빔 케루빔 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요, 발판이며, 속죄소였다.



크노소스 궁전 북동쪽 입구에 소재한 보좌지방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들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  
 (c. 1450 BC)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피링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궤)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нк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새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피нк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새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라마수(Lamassu) 석상(넬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새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새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날개 달린 바퀴에 앉은신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쉐겔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써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은신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거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통을 한 미케네 그리핀(Gryphon) 부조(c.1300 BC)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잦았고, 여러 차례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황금송아지 성소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죄의식도 크지 않았습니다.
- **둘째는**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역으로 수입한 상아로 장식한 궁궐과 별장이 건축되었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과의 결혼동맹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 현대인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사치와 향락을 당연시하며,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타 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5-7절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달려갔으며,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났고,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와 땅과 자식과 재물을 모두 잃고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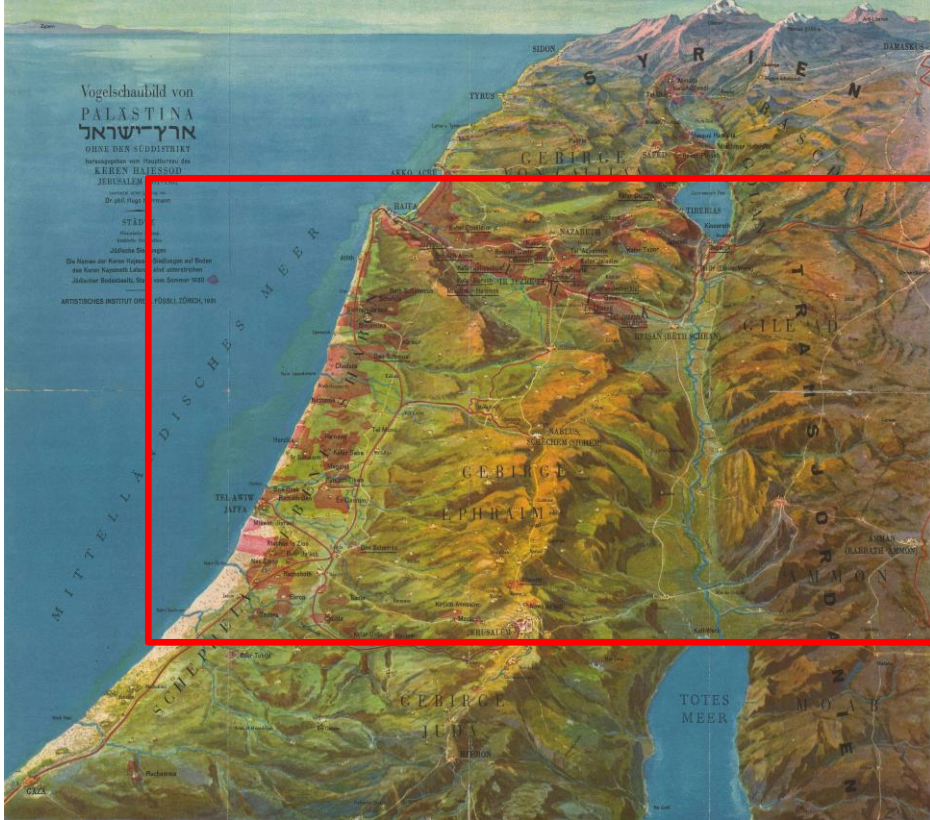
## 호세아 5:1-15

- 호세아 5장은 북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 전반 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는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와 **10장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에 연결됩니다.
-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이나 대속죄일과 같은 명절에 뿔나팔을 불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쟁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송수신기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나팔과 깃발**이 전쟁의 시작과 끝 또는 전진과 후퇴 등을 알리는 중요 수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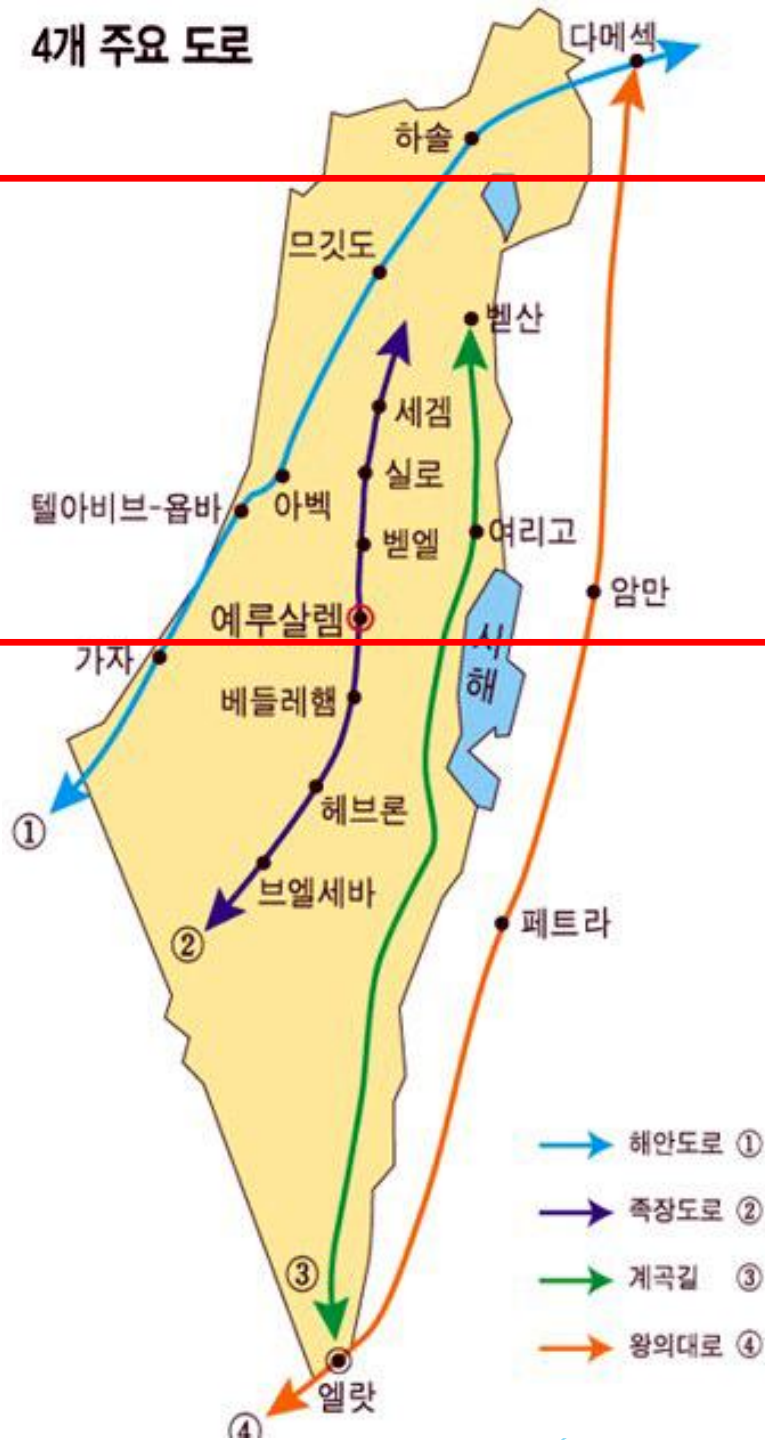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기브아(Gibeah)**는 히브리어로 ‘산’ 또는 ‘언덕’이라는 뜻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주거지로써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하였습니다(삼상 10:26, 삼상 22:6).
- 기브아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병목지역이므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욱보인 사건**으로 인해 기브아는 지파동맹과의 전쟁에서 철저히 응징을 당하여 베냐민 지파 자체가 멸절 될 위기에까지 놓였던 곳이기도 합니다(삿 19-20장).



### 4개 주요 도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2번 족장 도로를 따라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의 능선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이 **사건의 전말(顛末)**은 이렇습니다. 기브아에서 변태성욕자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자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열 두 토막을 내어 열 두 지파에게 보내어 기브아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 이 끔찍한 사건에 분노한 **지파들이 동맹하여 베냐민 지파를 응징** 하였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했었습니다(삿 21:8-9).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지파동맹연합이 남자 600명만 남기고 진멸시킨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염려하여 처녀들을 구해주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삿 21:1)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생각해낸 복안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모조리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잡아와 숨어 지내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그들과 평화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명절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을 보쌘 하여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남녀 600쌍뿐이었던 것입니다.
- 이 비극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호세아는 8-14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부패와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기브아가 당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호 9:9, 호 10:9).

#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 오브라

요르단 강

• 아이

갓

• 브에롯

• 믹마스

길갈

• 미스바

• 게바

• 여리고

• 벤아라바

• 기브온

• 라마

단

• 그비라

베냐민

• 기브아

• 벤호글라

• 모사

• 아나돗

D

• 예루살렘

• 힌놈의  
• 골짜기

유다

사해

킬로미터



1

2

3

4

5

6

7

A

B

C

D

E

A

B

C

D

E



Political capital of Israel from Omri onward

Jeroboam built a sanctuary

Jabesh-gilead

Shiloh

Ramah  
Mizpah  
Geba  
Gibeah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호 5:15)는 5장의 핵심 구절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에서 보듯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살면,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직 육체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구원(부활)은 이미 이뤄졌지만, 육체구원(부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시면 육체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내주 동거하게 하시면서 자녀들의 미래구원을 보증하시고 도장 찍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미래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 인간의 고통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든,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든, **신령한 몸을 덧입기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육체로 인한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미래구원 곧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인내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  
**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셋째는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시련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와 고난이 존재하는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고난 때문에 책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영적으로 부부가 된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계명, 토라,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랍비들의 오랜 생각이자 가르침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계약의 내용은 모세오경에 총 613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라’가 248개이고 ‘~하지 말라’가 365개인데, 이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쇠하고 망했다는 것이고, 성하고 흥하려면 이것들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리를 믿거나 영적인 문제를 따진다거나 하는 것은 유대교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실천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의 믿음(Emunah)은 하나님과의 계약(계명, 율법, 토라)을 믿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호세아 5:1-15

-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계약은** 구약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모든 활동 곧 하나님의 뜻의 대언, 민족사의 성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담긴 축복과 저주가 조건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약성경이 글로 남겨진 오늘날에는 이 성경 특히 **오경이 유대교** **인들에게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Pistis)**은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에 관한 진술 곧 신앙(교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 호세아 5:1-15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그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천 년간 수많은 신앙토론이 있었고, 많은 신앙고백서들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학서적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신학적 이해차이가 항상 있어왔을지라도, **신약성경만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신약성경 속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과 이해가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기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6: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 호세아 6:1-11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 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 호세아 6:1-11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 실수와 오류에서 백 퍼센트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 실수와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이혼하고 갈라서듯이 다시는 찾지 않거나 안 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다시 찾지 않거나 안 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지 않거나 안 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행한 짓이 얼마나 어긋난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 ➤ 벌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 벌을 하는 목적: 회개케 하기 위해서
- 벌을 받는 이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 복을 끊는 목적: 고마움을 깨달어 알라고
- 복이 끊긴 이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젠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일 것으로 믿고 추종한 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 예수님 생애 막판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이 바라던 다윗의 자손에 대해 **예수님께 적지 아니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이나 베드로와 유다가 배신한 것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의 향방을 가른 것은 '회개'와 '회개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몹시 기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에서 ‘찢다’ (תָּרַף, 타라프 taraph)와 ‘낫게 하다’ (רָפָא, 라파 rapha) 그리고 ‘치시다’ (נָכַח, 나카 nakah)와 ‘싸매어 주다’ (שָׁבַח, 카바시 chabash)는 유대교인들의 정결법(tohorot)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간음을 행한 자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셨으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정결케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것들을 **‘트레이프’(treyf)**라 부릅니다.
- ‘트레이프’란 문자적으로 **‘찢긴’**이란 뜻인데, 다른 동물들에 찢긴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유래했습니다(출 22:31, 레 7:24, 젤 4:14).
-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613개의 계명들 (Mitzvot)과 규례(계명의 율타리법들, Gezairoth)를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 곧 **‘찢긴’** 것에 해당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후에도 ‘도로 낮게 하다’와 ‘싸매어 주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0]...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찢으셨다, 치셨다=더럽혀졌다.

(출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레 7:24)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절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겔 4:14)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תָּרַף (taraph)  
 타라프

찢다, 갈기갈기 하다

매우 강한 파괴, 짐승이 먹  
 이를 찢는 이미지

רָפָא (rapha)  
 라파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육체적·정신적·국가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폭넓  
 은 치유

נָכָה (nakah)  
 나카

치다, 때리다, 상하게 하다

심판, 징계, 타격을 가하  
 는 행위

שָׁבַשׁ (chabash)  
 카(하)바시

싸매다, 붕대를 감다

상처를 돌보는 행위, 치유  
 의 초기 단계

## ◆ 치료하시는 하나님

➤ יהוה רופא יהוה 여호와 로페카(라파), Jehovah Ropheka(Rapha)

(출 15:26)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 יהוה צבא יהוה 여호와 카(하)바시, Jehovah Chabash

(시 147:1-3)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 3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랍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treyf) 것, 정한(kosher) 것, 거룩한(kadosh) 것으로 나눠놓고 부정(不淨)한 것을 멀리하고 정(淨)한 것을 가까이 하여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 또 모든 식품을 유제품(Dairy)과 육류(Meat)와 그 밖의 식품(Pareve)으로 나눠놓고 그것들을 담는 용기와 조리하는 기구들도 유제품용과 육류용과 그 밖의 식품용으로 철저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 그리고 그 용기나 기구들은 색깔로 구별되는데, 파랑은 유제품, 빨강은 육류, 초록은 그 밖의 제품에 사용됩니다.



색깔로 조리 기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대인들  
 파랑=유제품, 빨강=고기, 초록=그 밖의 식품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정결법(tohorot)**입니다.
- 대표적인 정결법에는 **손 씻기(Yadayim), 그릇 씻기(Keilim), 음식조리(Kashrut)** 등이 있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출 23:19, 34:26, 신 14:21)는 계명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찢긴’ 혹은 부정하게 된 후에도 **정결절차를 이행하면 부정한(treyf) 것이 다시 정한(kosher)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정한(Treyf) 음식을 별미로 소개한 사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치즈가 섞인 미트볼을 먹지 않는다.



바사르(고기)와 할라브(우유)를 섞지 않아야 정한  
(Kosher) 음식이라는 그림이며, 아래 영문은 "우리는  
지금도 모시아크(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만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식기류(Keilim)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침례(Tevilat)**를 행하여야 합니다.
- 침례에 가장 적합한 물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호수나 바다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근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정결의식용으로 사용합니다.
- 2019년 3월 서울 남산 인근에 유대교 의식용 침례탕(Mikvah)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개종 침례와 새로 구입한 식기류의 침례이외의 침수 정결의식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측은 예루살렘 근교인 에인 케렘(침례 요한의 고향)에서 발굴된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의 의식용 침례탕이고, 우측은 2019년 3월 서울 남산 인근에 설치된 유대교 의식용 침례탕(Mikvah)의 모습.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 가족. 처음 구입한 부정할 식기류를 정화하는 의식으로서 침례탕(Mikvah)에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낸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물속에 잠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몸에 붙인 반창고 같은 것들은 물속에 잠기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 또 유대교의 정결의식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의 경우 중도에 물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주전자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손등과 손바닥 및 손가락 끝과 손톱 속까지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한 번에 씻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씻거나 중도에 물이 끊기거나 다른 손이 닿거나 하면 무효입니다.



노소를 비롯하고 식사 전에 손 씻기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  
용기에 물을 받아서 손 안팎이 흠뻑 적시도록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hNoBu13yI8>

# WHAT IS A MIKVEH?

유대인 미크베 (침례탕)란  
무엇인가?



예수님(Yehshuah)을 그리스도(Moshiach)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Messianic Jews)의 랍비가 유대인 개종자에게 베풀고 있는 침례.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식기류의 정결의식은 더 까다롭습니다.** 유제품(Dairy)과 육류(Meat) 및 그 밖의 식품(Pareve)을 조리할 때 이들 세 가지 제품을 위한 각각의 전용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별도로 비치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사용하고, 씻을 때에도 섞이지 않게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싱크나 개수대에서 씻어야 하며, 전용 식기 건조대나 수건은 물론이고, 이들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보관하는 전용 찬장과 공간을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섞였거나 하여 부정하게 되면 정화해야 합니다.



카사룩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방  
고기제품과 우유제품, 또 그것들을 조리하거나 담는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싱크, 스토브, 전자레인지, 찬장 등을 두 개씩 설치하였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정결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 22-23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는 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근거하여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부정하게 된 식기류를 재질에 따라 정화한 후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호세아 6:1-11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 먼저 **불에 타지 않는 식기류**는 불로 지진 후에 물에 담갔다가 꺼내 쓰고, **불에 타는 식기류**는 물에만 담갔다가 꺼내 쓰는데, 당연히 정한 음식에만 사용합니다.
- 유제품과 육류제품이 섞이기 쉬운 **스토브를 정화할 때에는 토치를 사용하곤 합니다.** 싱크 안쪽 같은 데는 끓고 있는 물을 부어 지 집니다. 여기서도 물이 끓기면 안 됩니다. 들통을 이용하여 완전히 잠גיע 한 후에 끓여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정화는 토치나 끓고 있는 물로 지지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유제품 전용과 육제품 전용을 구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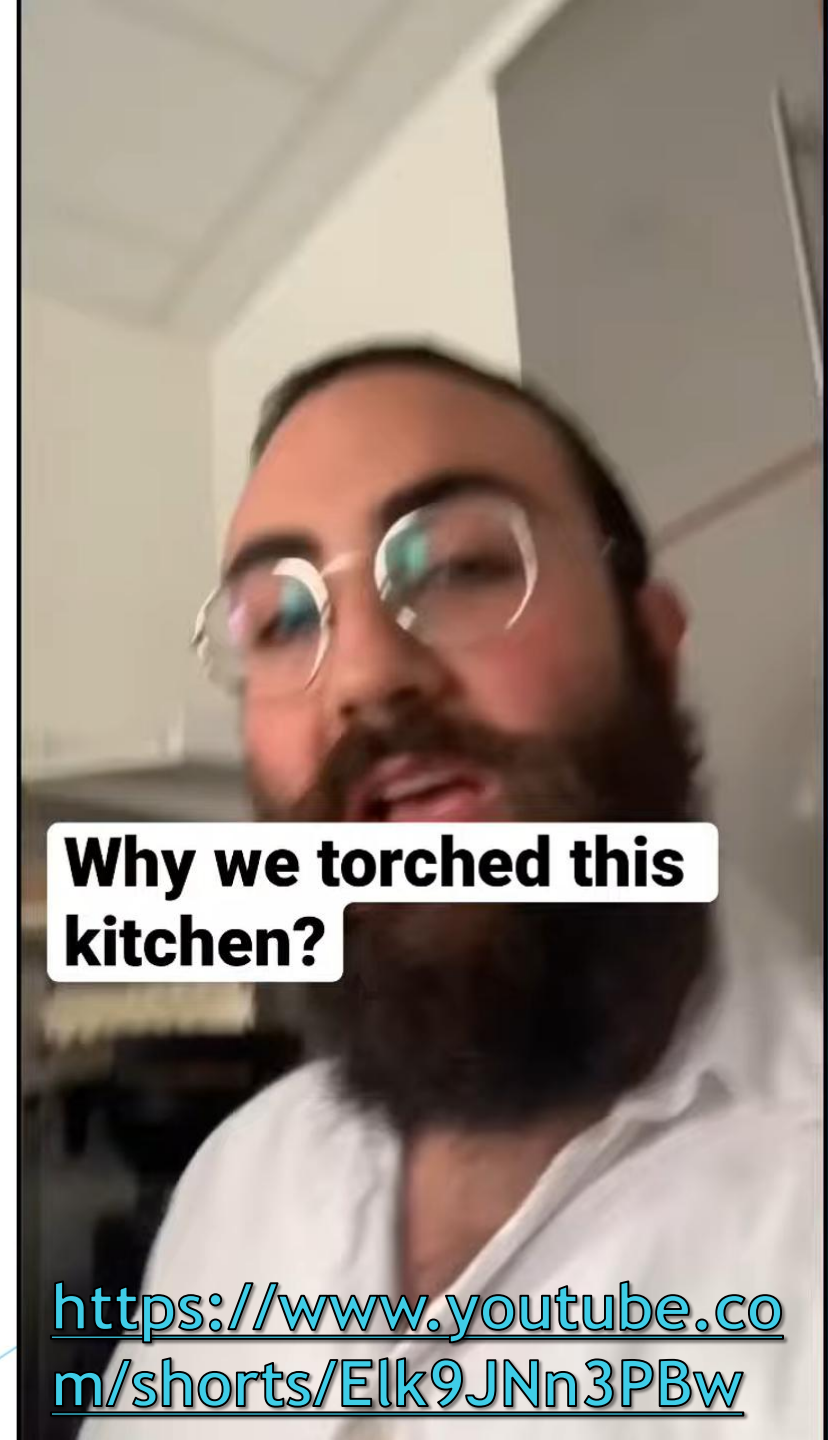




유월절 준비 행사의  
하나로 부엌의  
부정한 것들(특히  
배어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금속  
기구들을 불로  
지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인  
랍비가 이를 담당  
한다.



<https://www.youtube.com/shorts/91BGtkmjL-g>



Why we torched this kitchen?

<https://www.youtube.com/shorts/Elk9JNn3PBw>

➤ 메시지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정화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 치유하고 싸매 줄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6: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 호세아 6:1-11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 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 호세아 6:1-11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 호세아 6:1-11

###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3)

- 2-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시간의 적절함과 충족함(적당한 시간, 정한 시간) 을 말합니다.
- 죄인일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 호세아 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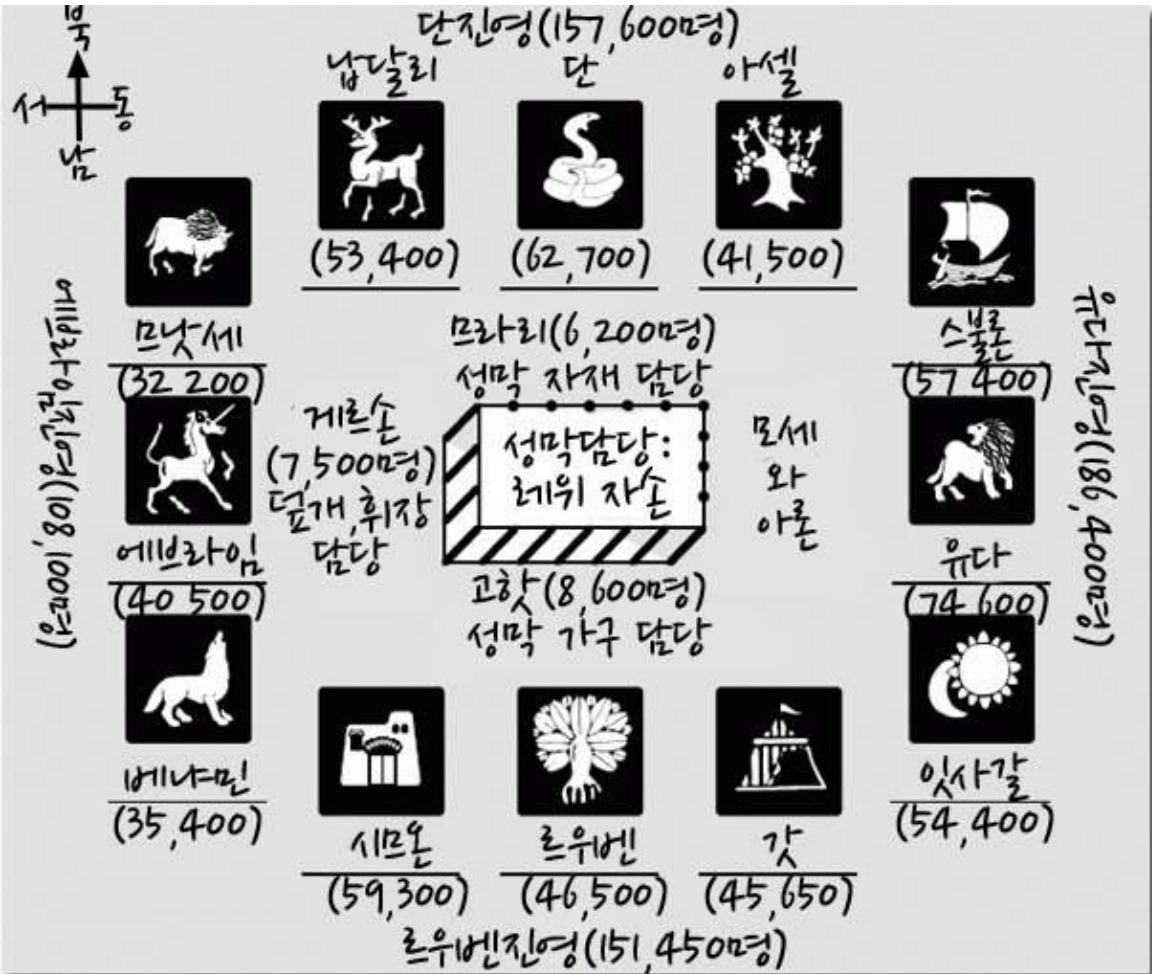
###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3)

- 유대교 랍비들은 “이틀”과 “셋째 날”을 때로 이해하여 “이틀”을 이집트와 바빌론으로, “셋째 날”을 로마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틀”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으로, “셋째 날”을 모쉬아크(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온전한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랍비들도 종종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때가 있다.

## 호세아 6:1-11

###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3)

- 2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존전(코람 데오 coram Deo)에서 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지파별로 텐트를 칠 때에는 **동서남북 중앙에 성막을 설치**하였습니다.
-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서 피어오른 야훼의 계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이동시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 이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 (민 2-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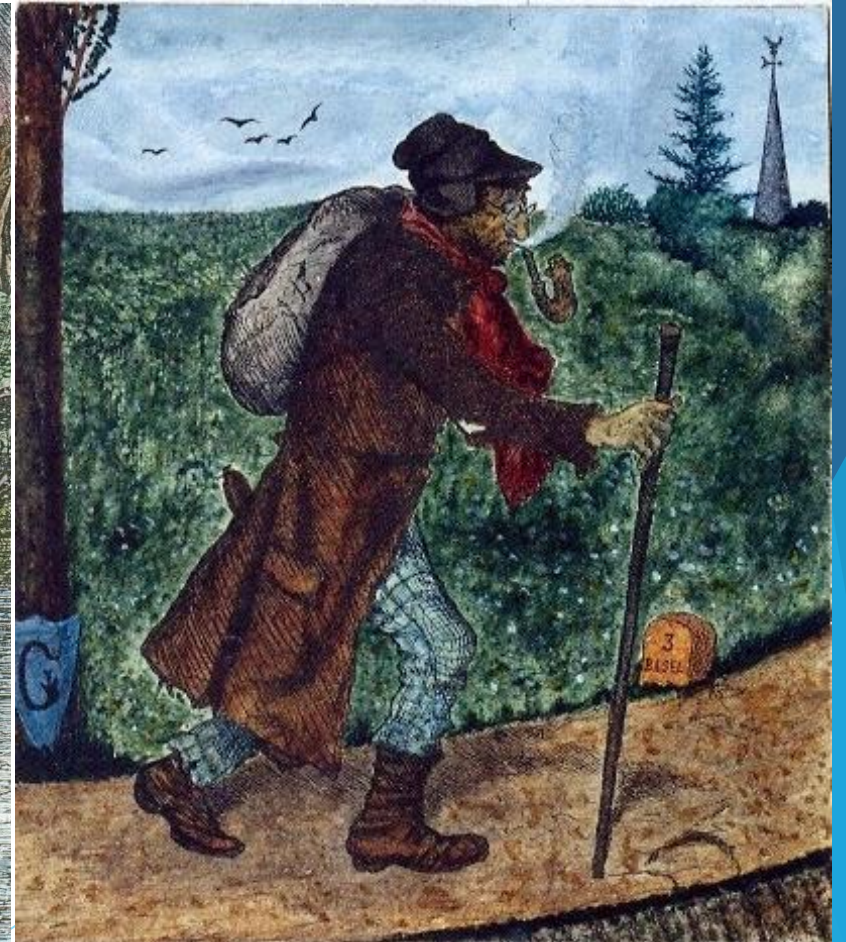


구름기둥과 불기둥=야훼의 계시, 임재의 상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생활의 삶은** 배고프고 목마르며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 **인간은** 육신의 숙명인 결핍과 갈구로 울부짖고, 백 번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 번의 어쭙잖은 기적에 더 끌리며, 가혹한 현실에 방황하며 울고 신음합니다.
- **인간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황금 송아지에 더 끌리는지 모릅니다.
- [아하스 페르츠가 다시 탄식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증거 없이는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백 번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 번의 어쭙잖은 기적에 더 끌리는 것이 인간이며, 미망과 방황의 세월을 울고 신음하며 더듬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소?”] - 이문열, <사람의 아들>

-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에 **유대인 아하스 페르츠**가 등장합니다. 아하스 페르츠에서 **'아하스'**는 17세기경 유럽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주전 5세기 중후반에 바사제국을 통치했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어로(Ahasueru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 **'페르츠'(Perez)**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창 38:29)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 아하스 페르츠에 얽힌 전설은 13세기 유럽에서 처음 나왔으며,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던 중에 지쳐 쓰러진 곳이 아하스 페르츠의 집 앞이었는데, 잠시 쉬어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못하고 세상을 떠돈다는 인물입니다.
- **아하스 페르츠는 떠돌이 유대민족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떠돌이 유대인'(the Wandering Jew)**이라 해야 알아듣습니다.**

- 마태복음 4장 1-11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이문열은 그의 소설 <사람의 아들>에서 **아하스 페르츠로 의인화**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문답을 나누는 자는 마귀가 아니라, 독립을 염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암시**를 담았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시험한 내용도 유대인들의 염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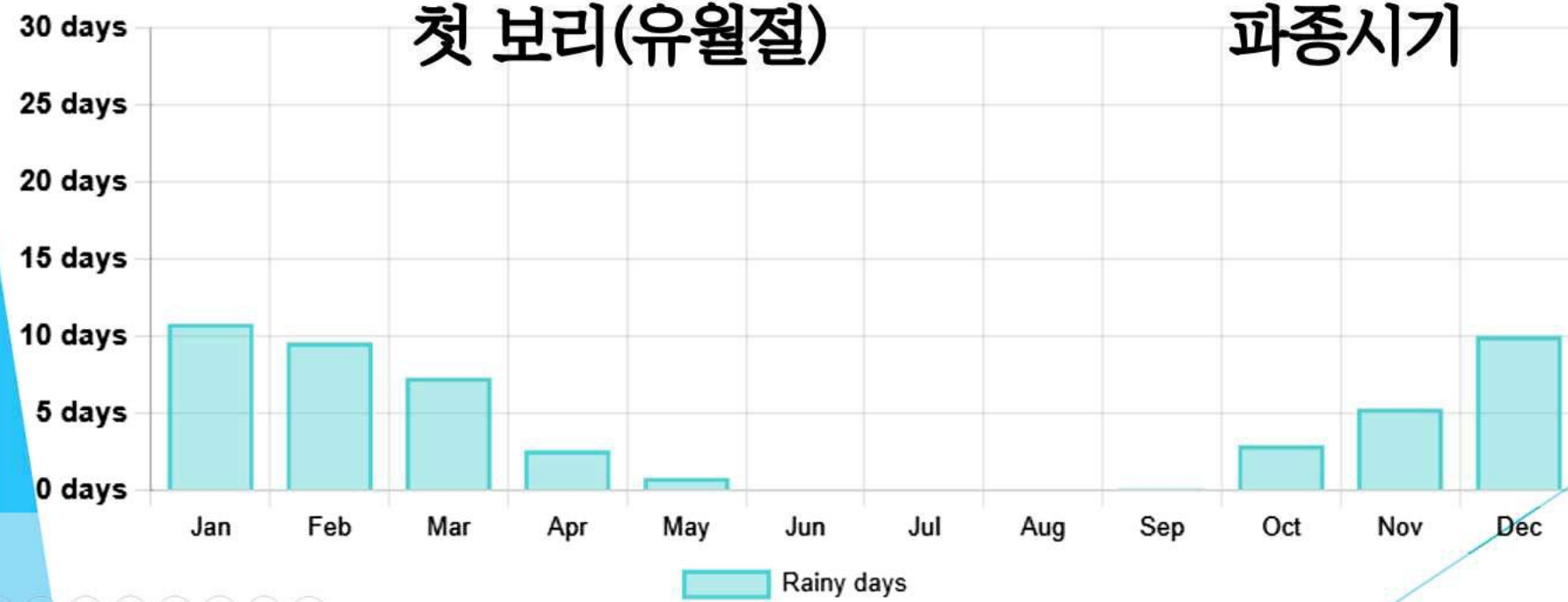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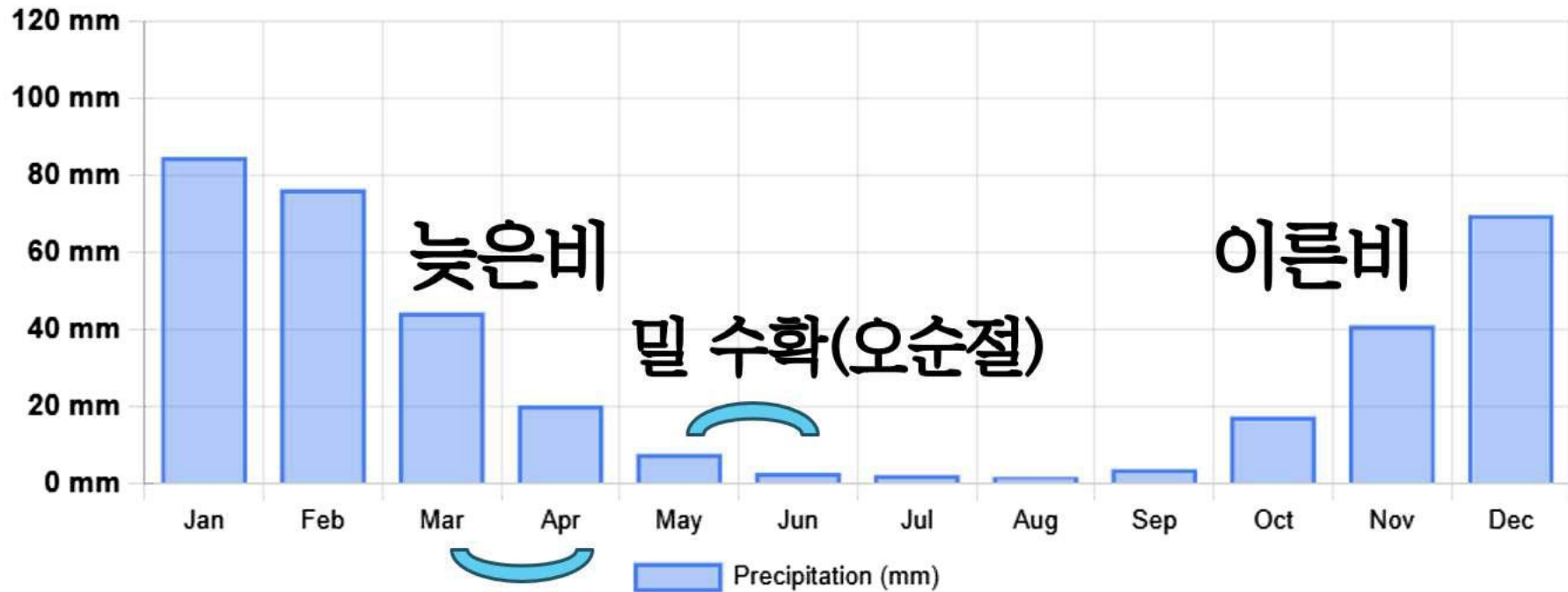
## 호세아 6:1-11

###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3)

- 호세아는 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애 仁愛’**라는 것을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 3절에서 **“새벽 빛”**이나 **“늦은 비”**와 같은 것은 자연현상으로써 변함이 없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 호세아 6:1-11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밤이 깊으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또 보리와 밀 수확을 앞두고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면 풍년이 들듯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합니다.
-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인 데다가 비가 주로 겨울에 내립니다.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늦겨울에 내립니다.
- 유월절이 지나면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오순절 즈음에 밀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시기에 앞서 늦겨울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준다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שראל의 수도  
텔아비브의 연중  
강우량**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선지자 호세아는 4-5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있어야 할 인애(헤세드) 없다고 했습니다.

➤ 히브리어 חֶסֶד 케(헤)세드 hesed의 의미

- 언약적 사랑
- 신실함
- 인애(仁愛)
- 자비와 은혜
- 변함없는 헌신

## 호세아 6:1-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선지자 호세아는 4-5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있어야 할 **인애(헤세드) 없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인애가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의 관심이 음행과 향락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다**고 했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인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 되었고 이제 그 날이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다가왔다며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 호세아 6:1-11

- 6-7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 예수님은 율법(토라)의 핵심을 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호세아 6:1-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 그 같은 행위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기에 급급 했었다는 것을 반영한 말씀인 것입니다.
- 8-9절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젼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는 **인애를 베풀어야 할 곳에서 제사장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 호세아 6:1-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이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 라못’인지, 길르앗의 중요 성읍인 ‘미스바’인지 혹은 길르앗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만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8절)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면, 이 곳은 ‘세겔’과 함께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던 성읍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애가 베풀어져야 할 곳에서 그것도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며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행이 남북 이스라엘 모두한테서 발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경고입니다.



## 호세아 6:1-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인간의 문제점은** 인애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애가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정말로 허기를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인애의 굶주림입니다.
- 인애가 베풀어지는 곳에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인애는 빈말과 빈손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자기희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말씀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 계시록에서도 많은 재앙과 저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의 끈, 믿음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최후 승리와 황금 월계관과 영원한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인 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긍정에 있고 부정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 호세아 6:1-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 **메시지의 핵심이** 구원에 있고 저주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빛과 질서와 생명에 있고 어둠과 혼돈과 죽음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 그러므로 **6장의 핵심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권면이며 설교입니다.
- 따라서 **예언의 말씀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now, here)입니다. 지금 여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7:1-16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궂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 호세아 7:1-16

[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앞드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 호세아 7:1-16

[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 호세아 7:1-16

[1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값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 ◆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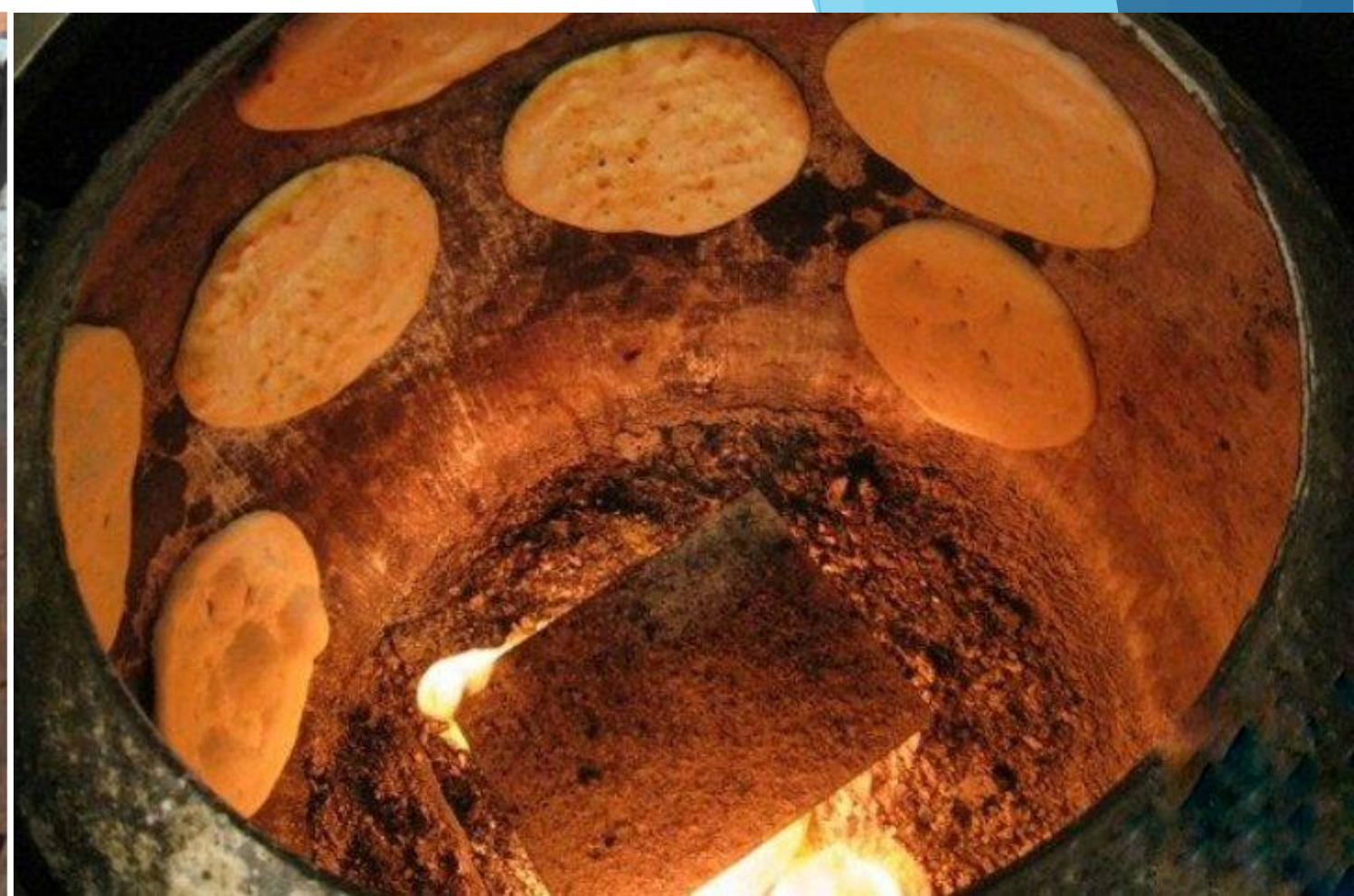
➤ יהוה רופא יהוה 여호와 로페카, Jehovah Ropheka

(출 15:26)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 אל עליון 엘 엘리온, El Elyown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화덕(오븐 תַּנּוּר תָּנּוּר 타누르)  
과자 만드는 자(베이커 אִוּפֵּי, 오페)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예언의 핵심은 회개

[https://www.youtube.com/shorts/HRukw\\_14rhM](https://www.youtube.com/shorts/HRukw_14rhM)

<https://www.youtube.com/shorts/JloAo0OHyMw>



**THEY DON'T**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했습니다.



**PEACE**

평화, 번영,  
평화, 평화, 평화.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정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 **1절부터 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국들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합니다.
-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자기들이 의지하려던 제국에 의해 멸망당 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호세아 뿐 아니라 다른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제국들에 의지하여 안보를 보장받으려 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주전 722년에 망한 후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국이 망한 후에도 다윗왕국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emunah: 이성을 초월한 타고난 확신)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유대인들이 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라(계명, 율법) 준수와 혈통 보존과 더불어 하루 세 번씩 회당에 모여 기도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 또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최소인원(minyan)을 가장 열 명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기도회 때 서서(Amidah) 드리는 기도문(Berachot)을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 부릅니다. 참고로 사도시대 직후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유대인들의 이 기도문들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낭송하도록 권하였습니다.

## Amidah Prayer Bowing God\_자막

유대교인들이 하루 세번  
오전 오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쉐모네 에스레이'는  
서서 낭송하는 기도로써  
보통 '아미다'로 불린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에서 **“치료”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개운동**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긴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회개운동을 대언(代言)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를 말한 것으로써 나라 전체가 썩고 부패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죄악을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유행위 곧 선지자들의 회개운동을 거부하였습니다.
-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녹화해놓고 계신데도 정작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행을 생각조차 안하고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령이신 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알산당에서 펼치는 바쿠스축제와 같은 육체적 쾌락과 포도주에 취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망각하였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오히려 그 같은 악행이 왕과 지도자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3절). 왕과 지도자들이 그 같은 악행을 기쁘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들이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때문이라고 국방이 튼튼한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 같은 현실은 **메가 태풍이 불어오기 전 고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 닥치기 직전의 잠시 동안의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폼페이**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며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베수비오 산 분화구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었고 폭발 직전에 있었지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 **소돔과 고모라의 땅 속이 용암으로 끓고 있었고 폭발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천사)들 이외에 **그 다급함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며 온갖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롯과 그의 가족도 몰랐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유황불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기막힌 구원의 체험이 롯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지 않았나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인 동시에 실제로 바알산당에서 이뤄진 예배자들과 성창들과의 육체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신적 종교의식 때문에 당대에 성병이 많이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무렵에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압평지 싯딤에 이르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속아 **브올(Peol) 산의 바알산당 축제**에 참가한 직후에 2만 4천명이 열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민 25:1-9, 31:16).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이는 히브리인들이 바알산당에서 성창들과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병은 성창들한테서 옮긴 성병으로써 성적으로 깨끗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혹은 히브리인들이 사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때 죽은 자들이 2만 3천명이라고 하였는데, 칼에 도륙당한 자들 1천명을 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는 모습도 없고,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메마른 종교의식에 식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끝없이 부딪쳐왔던 유혹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의 발등상으로 착각하게 할 황금송아지가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 황금송아지 발등상은 야훼를 바알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오늘날 황금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한 '돌진하는 황소' (Charging Bull)은 금융 시장의 상승장 (bull market)을 상징하며,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황소상은 1989년에 제작되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어오르는 미국 금융의 힘과 희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고린도가 그리스의 타락한 소돔성이 됐던 데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여신 아프로디테 (Aphrodite)가 있었다면, 그녀의 배경에 아스다롯(Ashtoreth)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유사한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각각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교의 특징은 향락문화에 있습니다. 돈(money)과 성(sex)을 섬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바알종교입니다. 돈과 성은 현대인들이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호세아는 이 같은 현상을 4-7절에서 “**달궂어진 화덕과 같도다**”고 하였고, “그들(의 마음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없드리지게 하며(죽어 가는데도)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 그것은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탈출하지 않는 현상과 같았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8-17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장차 패망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 곧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성심으로 부르거나 찾지 않았으며**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같은 악행을 멸망을 앞두고 나타난 전조현상으로** 보았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으로만 읽는 사관(史觀)이요, 둘째는 정세로만 읽는 사관이며, 셋째는 정세와 신앙 모두로 읽는 사관입니다.
-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한 경우 멸망까지 시키셨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앙은 하나님 의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많은 경고와 회개촉구가 있는 후에 닥쳤 습니다. 재앙에 대한 전조는 항상 있었습니 다. 이 전조를 읽는 때 러다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앙만 으로 읽고 해석하는 틀(패러다임)이고, 둘째는 정세나 지정학적 관계에서만 읽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셋째는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이 세 번째 틀(패러다임)로 국제정세를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조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사야, 호세아,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라를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만일 그들이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았다면, 회복운동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2,600여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근거가 바로 이들 예언자들의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 또는 시내산 언약에 판단기준을 둔 진단과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역대기 사가(史家)들이 내린 처방 또는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법에 있습니다.**

## 호세아 7:1-16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토라(계명, 율법,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혈통을 보존하면, 비록 지금은 나라와 영토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영원한 것이라고 처방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나라와 영토를 빼앗긴 이후 나라가 없는 유랑민(Wandering Jews)으로 산지 무려 2534년이 지난 주후 1948년 5월 14일에 고토를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국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상상 속에서 조차 가능한 일입니까?



호세아 연구 1-8장  
God's Amazing Love for Us

## 호세아 8:1-14

[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그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 호세아 8:1-14

[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 호세아 8:1-14

[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앓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 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죄하기 시작하리라.**

[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 호세아 8:1-14

[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 호세아 8:1-14

###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라라!

- 호세아서 8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였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로잡아다 이방나라들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재건 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 호세아서 8장은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3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 호세아 8:1-14

###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라라!

- 선지자들의 예언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을 동안은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고”(욘 3장) 회개한 사건과 같은 일이 매우 슬프고 불행하게도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 호세아 8:1-14

###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 인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패망하고 맙니다(잠 16:18).
-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인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 까닭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선지자들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내린 **처방은 회개**였습니다. 병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 호세아 8:1-14

###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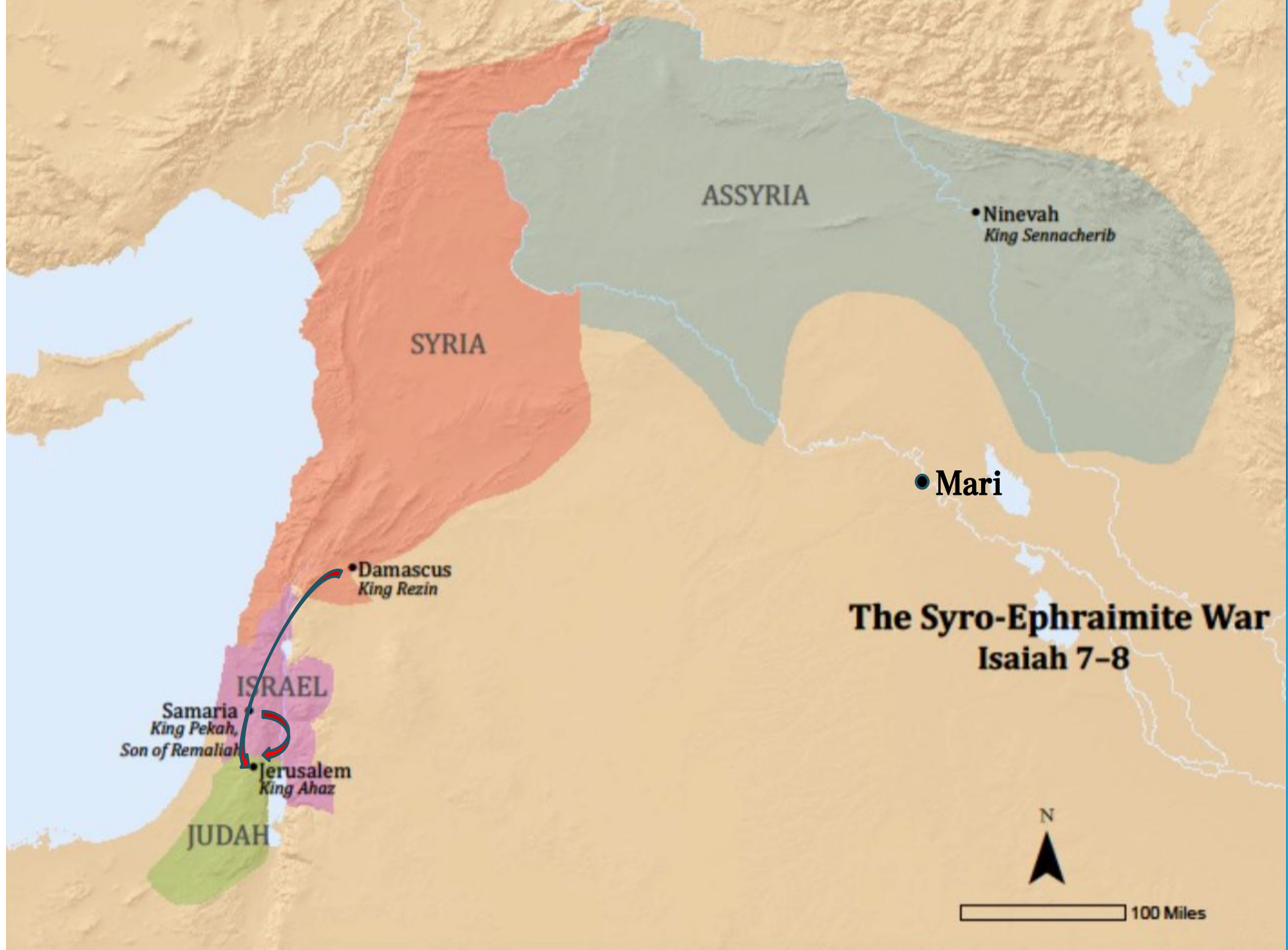
- 영웅이나 제국을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의 적이 바로 **교만과 오만, 사치와 향락**입니다.
-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은 국제 정세변화를 읽지 못한 **외교적 패착**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젊은 호랑이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지역)의 서진정책을 막기 위해서 **늙은 호랑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지역)과 동맹을 맺고, 주변국들인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왕국에 사신을 보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며 보복침략(**시리아-에브라임 전쟁, 735-732 BC: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한 사건**)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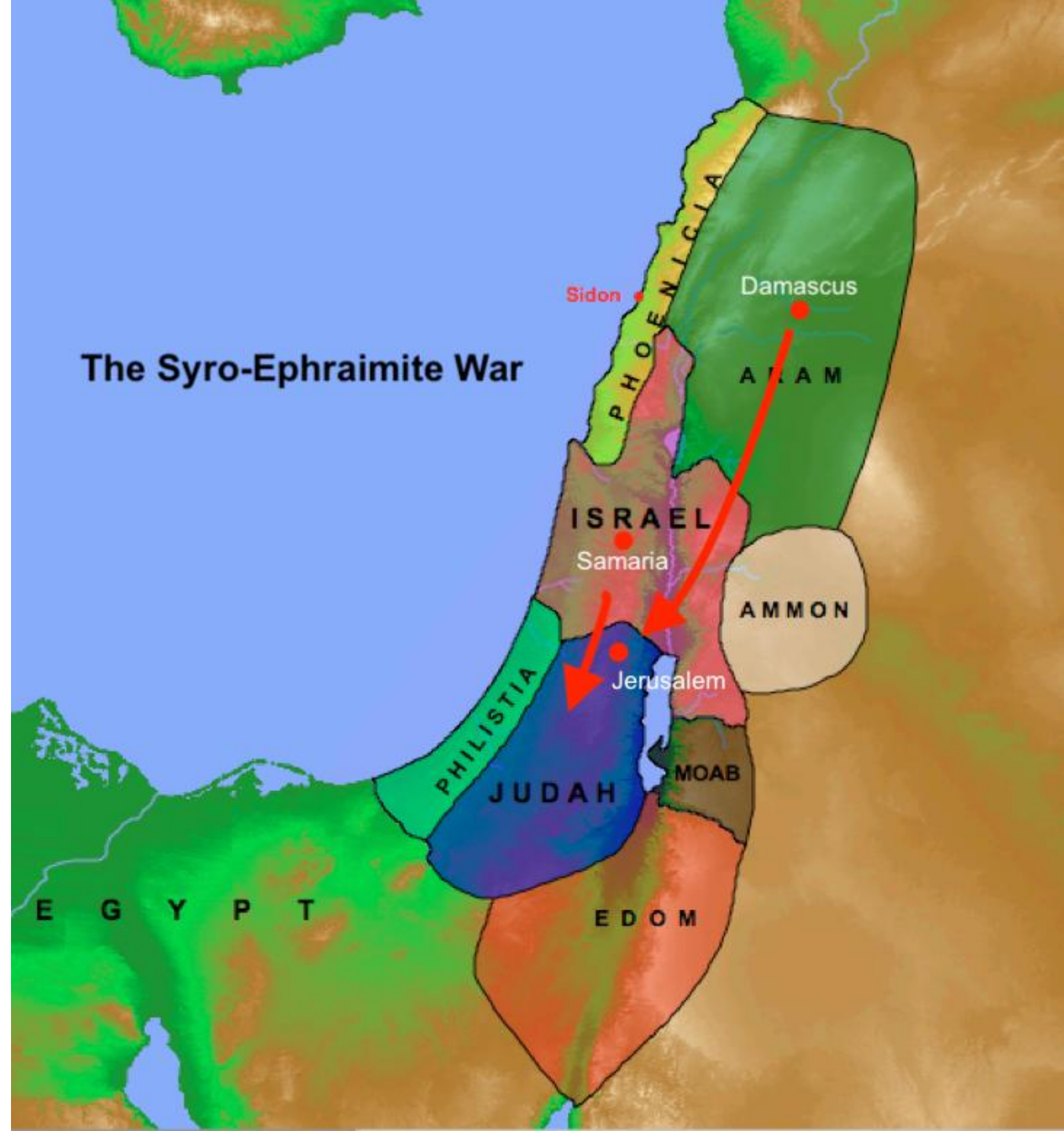


[사 7:1] 웃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사 7:1] 웃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사 7:1] 윗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 때였고, **북이스라엘의 호황기**였습니다.
- 그 때문에 호세아와 아모스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였습니다.
-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불행히도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 **여로보암 2세**는 엘리사의 지지로 혁명에 성공한 **예후가 세운 왕조의 4대 왕**이자 사실상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권을 이어받긴 했지만, 단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1. **스가랴**(Zechariah, 재위 약 6개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단 6개월 만에 살룸의 쿠데타로 살해됨.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반영.
2. **살룸**(Shallum, 재위 1개월): 스가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므나헴의 반란으로 1개월 만에 사망. 극도로 짧은 통치로 왕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줌.
3. **므나헴**(Menahem, 재위 10년): 디르사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름. **잔혹한 통치**(반란 도시를 공격하며 임신부까지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음, 왕하 15:16). **앗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굴복.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 거두어 조공을 마련,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4. **브가히야**(Pekahiah, 재위 2년): 므나헴의 아들. 장군 베가의 반란으로 살해됨. 왕위 계승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내분이 이어짐.
5. **베가**(Pekah, 재위 20년):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 등과 동맹을 맺음**. 그러나 앗시리아의 공격으로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을 빼앗김. 결국 호세아의 쿠데타로 살해됨.
6. **호세아**(Hoshea, 재위 약 9년,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처음에는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으나,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반기를 뒀**. 앗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후계자 **사르곤 2세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앗시리아에 의해 강제 이주 당하여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모두 실종 됨.

##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 **특징과 교훈**: 쿠데타와 암살의 연속.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부터 왕위가 계속해서 반란으로 교체됨.
- **앗시리아의 압박**: 므나헴 이후 왕들은 앗시리아의 강대함에 굴복하거나 저항하다 멸망.
- **백성의 고통**: 조공 부담, 전쟁 피해, 강제 이주로 인해 사회적·종교적 기반이 붕괴.
- **역사적 의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 왕국과 대비되며,
  - \* 성경에서는 신앙적 배반과 사회적 불의의 결과로 해석됨.
  - \*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외교의 실패.
  - \* 자기중심적 혼합 신앙, 폐쇄적 민족주의

# 호세아 8:1-14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라라!

## 하나님의 허락의지

- 북이스라엘에 닥친 끔찍한 결과는 하나님이 내린 보응 때문이 아니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 북 이스라엘 왕국이든 남 유다 왕국이든 모두 소수민족의 작고 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왕국들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혹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롬 1:18-32).

## 호세아 8:1-14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호 8:1-7).

- 1-7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그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 호세아 8:1-14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호 8:1-7).

- 1-7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는 북이스라엘을 덮쳐서 쓸어버릴 큰 전쟁이 있겠으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으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 호세아 8:1-14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호 8:1-7).

- 그들은 황금송아지를 세우고 일컬어 여호와와 발등상이라고 말하며 입 맞추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나 실상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신이 아니라, 장인이 붓고 새겨 만든 죽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군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 고대의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神)의 이름으로 싸우는 대리전이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면 자국의 신도 패하여 적군의 신에 흡수되고 맙니다.

## 호세아 8:1-14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호 8:1-7).
  -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후 이집트의 신 ‘아문’(아몬, 암몬, 아멘)을 접수하였고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합쳐져 ‘제우스-아문’이 되었으며,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퀴루스)가 바빌론을 점령한 후 바빌론의 신 ‘마르дук’을 접수하여 ‘벨-마르дук’이 되었고,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아버지 신 ‘엘’을 접수하여 ‘야훼(여호와)-엘’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제우스와 주피터를 동일하게 여긴 것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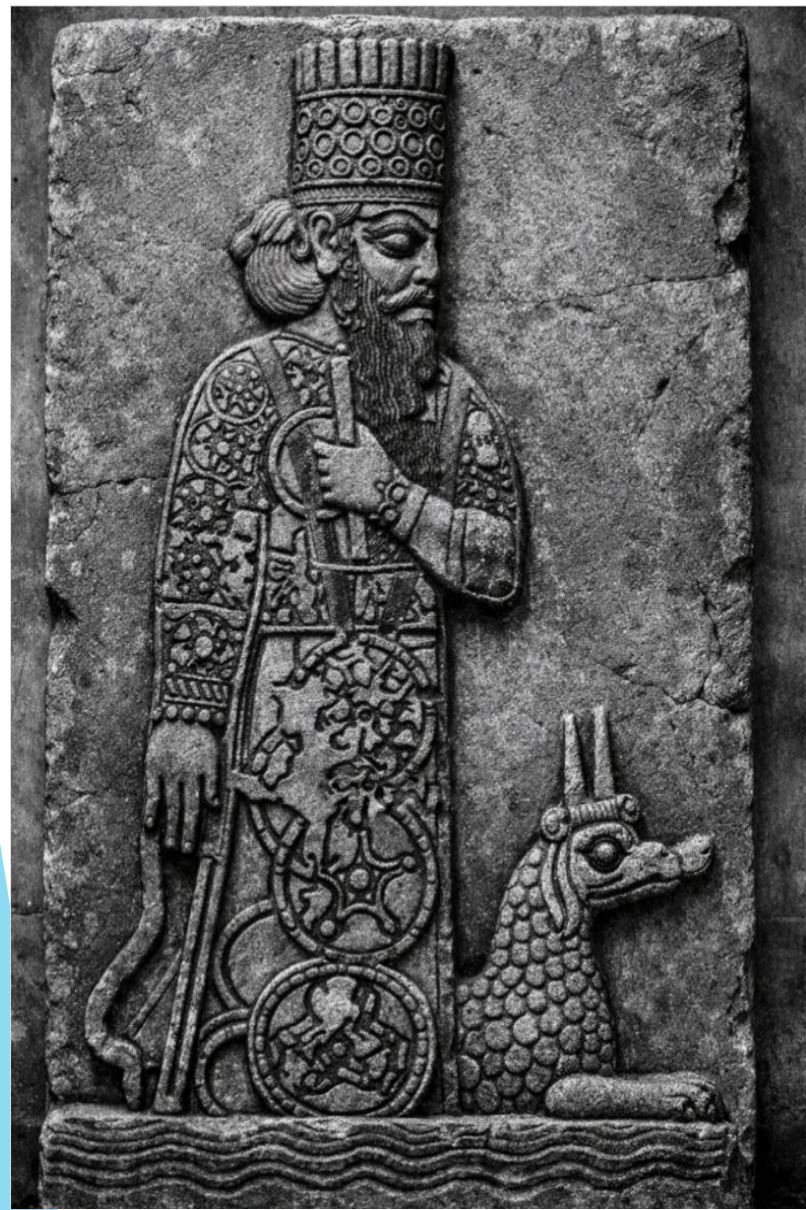
**벨=마르둑**  
신상이  
새겨진  
쿠두루  
(kudurru)  
석비.  
바닥의  
용(뱀)은  
발등상  
혹은 보좌.



**엘=야훼** 신상



**제우스=아문** 신상  
알렉산더=제우스  
제우스=주피터



**벨=마르дук 신상이 새겨진 쿠두루 (kudurru) 석비. 바닥의 용은 티아맛**



**바다(혼돈)의 여신 티아맛(Tiamat)과 바람의 신 마르дук(Marduk)**

## 호세아 8:1-14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호 8:1-7).

-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아시리아 혹은 바빌론에 패했을 때 선지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미쁘시고 선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처방**을 선포하셨습니다.
- **이 믿음이** 남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패망한 지 2500여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고토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8-10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 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처참한 꼴이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 그들이 **사랑한 자(것)들이** 그들을 **처참(멸망)하게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이스라엘은 이미 먹혔고, 쓸모없게 되었으며, 홀로 떠도는 들 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 조공을 바치며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가중한 짐에 짓눌려 결국 쇠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탓이라는 것입니다.

## 호세아 8:1-14

-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라도 형틀에 부어 만들거나 조각칼로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4, 34:17).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벤엘 성소와 단 성소에 세운 황금송아지는 그것이 여호와와 발등상이었을지라도 아론의 황금송아지가 그랬듯이(출 32:4)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형틀에 부어 조각칼로 새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 참고로 법궤 뚜껑에 세운 케류빔이나 메노라(등대)는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 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전체가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출 25:18, 37:7, 22, 39:3, 민 8:4).



- 순금 덩어리를 두들겨 쳐서 만든 케류빔과 등대,
- 황금송아지는 형틀에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긴 황금 송아지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왜 아론이나 여로보암은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송아지(황소)는 고대근동에서 신들의 발등상(보좌)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 송아지로 상징되었던 가나안의 최고 신 ‘엘’이 이집트와 사막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와 통합된 때문이었습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눈에 보이는 뭔가로 형상화시킬 강한 백성의 욕구를 채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하나님은 아론의 황금송아지를 제거시킨 직후에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신 10:1-5).
- 하나님은 형틀에 붓고 조각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만든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불법 형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인간은 뭔가를 눈으로 봐야 확신하고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송아지에 입까지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호 13:2).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북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예후조차도, 황금 송아지를 치우지 않았고 치울 의사도 없었습니다.
- 황금 송아지를 문제 삼았던 주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합법 성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불법으로 여긴 남 유대였습니다.

## 호세아 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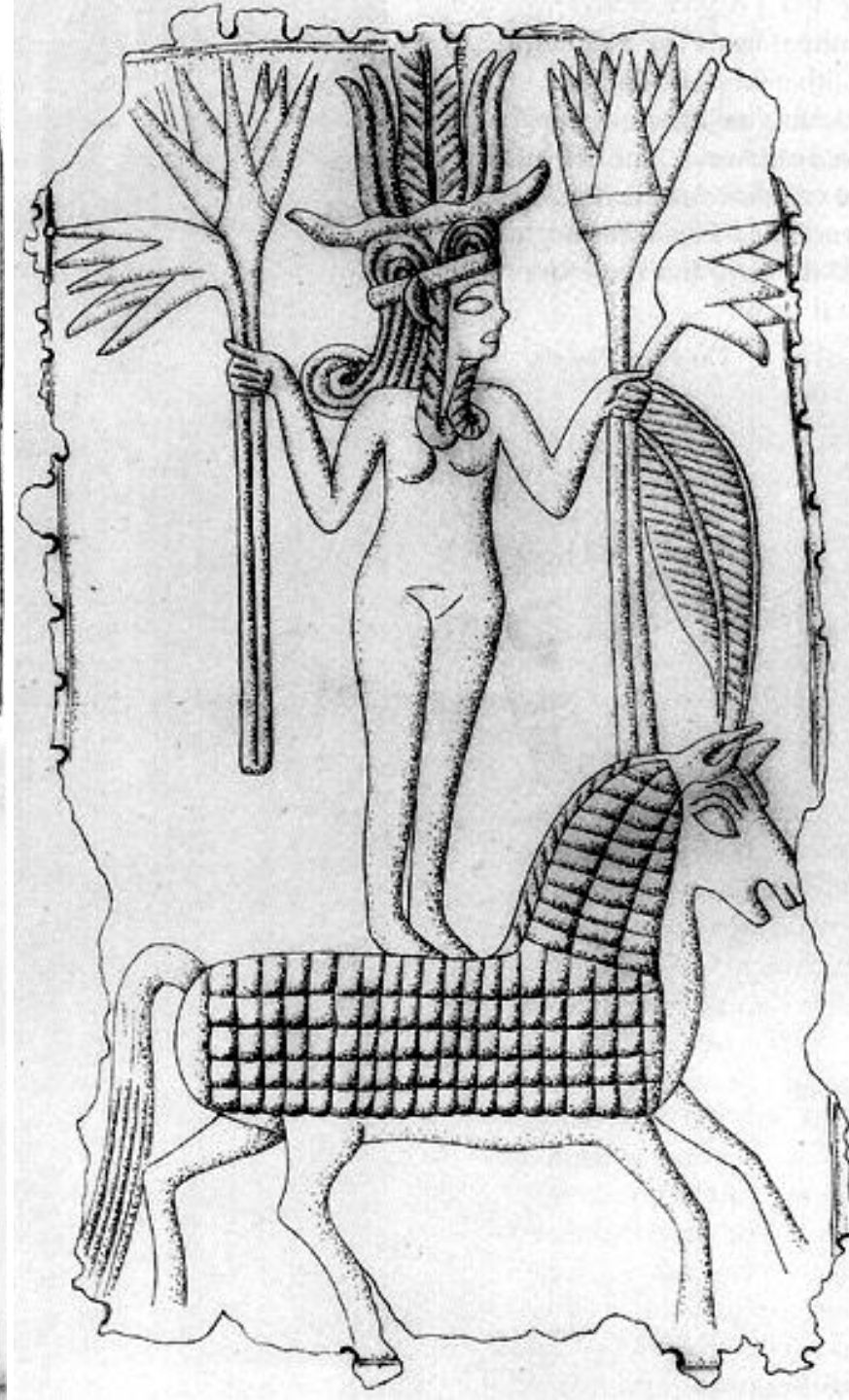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그러므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에 있지 않고 **당대 근동세계의 종교문화에 동화된데 혹은 혼합한데** 있었습니다.
- 나라를 잃고 난 후 **남 유다의 엘리트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방인 종교 문화에 동화되는 순간 유대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혈통을 유지하는 것만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영토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한 지 2500년을 넘긴 1948년 5월 14일 기어코 나라를 그것도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송아지 등에 올라선 ‘아다드’(Adad) 혹은 바알 부조(浮彫), 송아지 등에 올라선 금박(金箔)에 새겨진 여신 아스다롯 등이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여전히 몇 곳에 남아 있습니다.
- 이처럼 송아지 혹은 황소는 엘과 바알 및 아스다롯의 발등상 혹은 보좌였습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벤엘 성소와 단 성소에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세워졌으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종교 곧 엘과 아세라 및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에 별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 **황소(숫소)는 바알이나 아버지 신 엘의 상징으로 암소는 아스다롯의 상징이었습니다. ‘엘’(El)은 히브리어 문자 ‘E’(알렙)와 ‘L’(라메드)로 되어 있는데, ‘E’(알렙)는 황소(힘)를, ‘L’(라메드)은 막대(권위)기를 의미합니다.**

라메드

**lamed**

Staff, cattle goad; prod,  
toward, control authority

지팡이, 소몰이 막대기  
통제권

**EL**

(God)

엘/하나님



알레프

**alef**

Ox, bull; strength, leader,  
first

황소, 힘, 지도자,  
최고 권위자

God is the "strong (or first) authority!"

**EL** as in

**Elohim**

엘로힘



**Eh-lo-heem**

엘-로-힘

**El Shaddai**

엘 샤다이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5-6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송아지는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침으로부터 북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혼합종교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남 유다라고 해서 바알 종교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냥 우상숭배였던 것이지, 혼합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호세아 8:1-14

- 그러나 북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와 발등상이 황금 송아지(황소)였던 데다가 바알 종교의 '엘'의 발등상도 송아지(황소)였기에 '엘-여호와' ("El Elohim YHWH" = "엘 엘로힘 야훼" =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 22:22)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으리라 추정됩니다.
-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야훼)를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그 지역 최고 신 혹은 아버지 신인 '엘'로 부르거나 '엘'을 여호와로 바꿔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엘'이 쓰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였으므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지의 신은 정복자의 신에 통합**되곤 하였습니다.
- 두 다른 최고의 신들이 통합된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통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배지 국민들의 동화를 끌어내는데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 반면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엘’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세라’와 자식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 호세아 8:1-14

###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 그것은 바알 산당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각각 비와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로서 산당에서는 이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성창들과의 간음이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런 정황들로 볼 때 북 이스라엘 곳곳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바알 산당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은 바로 북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혼합종교)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장(章)입니다.**

## 혼합종교의 심각성

- 혼합종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지만, 혼합종교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섞는 행위이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 곧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 혼합종교의 심각성

- 혼합종교가 왜 더 위험할까요?
- 왜곡된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혼합종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 혼합종교는 언약의 핵심을 파괴합니다. 핵심 언약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배타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혼합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등을 함께 섬겼습니다.

## 혼합종교의 심각성

- 혼합종교는 ‘신앙의 기준’을 흐려 사회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 성적 의식, 인신제사 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합종교는 이런 이방 관습 곧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했습니다.
- 혼합종교는 ‘정체성 붕괴’를 초래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되었지만, 혼합종교는 이 구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당시, 신앙적,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 혼합종교의 심각성

- **하나님을 왜곡함** →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만듦
- **언약 파괴** → 독점적 관계를 무너뜨림
- **사회적 타락** → 종교가 타락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됨
- **정체성 붕괴** → 이스라엘의 구별됨이 사라짐
- **회개 불가능** →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
- 그래서 성경은 혼합종교를 영적 간음, 배교, 언약 파기로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11-13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여호와께 제사를 바치지 않았던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았던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13장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고 하였습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데 있었습니다. 이방종교에 동화된 데에 있었습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 하나님은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4, 34:17). 히브리어로 **“새긴 우상”**을 ‘페셀’(pesel)이라 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마세카’(masecha)라고 합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마세카’**라는 명사는 성경에 12회 정도 언급되었는데 하박국 2장 18절만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11회 정도는 ‘마세카’를 동사로 번역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다’라고 옮겼습니다. 소개한 호세아 13장 2절에서도 “우상을 부어 만들되”로 번역되었습니다.
-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형틀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 만든 황금송아지를 세운 이후 하나님은 성막의 성구들 중에 운반막대를 끼울 고리와 같이 부득이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들겨서 쳐서**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이 점이 이방종교의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과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인 ‘엘’, ‘바알’,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던 송아지를 여호와 의 발등상으로 만든 것이었고, 게다가 그 송아지들이 형틀에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긴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 반면에 하나님이 만들도록 지시하신 발등상 또는 보좌는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준 두 개의 돌판이 담긴 법궤 곧 황금박(黃芻箔)으로 감싼 나무상자였습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의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는 나라가 처참히 붕괴되고(14절) 사로잡혀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13절)이라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행하였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씀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 호세아 8:1-14

###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 그리고 4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속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는 4세기 이후 18세기 말까지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모두 국교이거나 시의회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수정 헌법 제1조가 채택된 1791년 12월 15일 이후였습니다.
-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종교와 바알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호와-엘' 곧 '여호와 곧 엘' 종교통합 혹은 혼합종교 때문에 바알종교에 동화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를 거의 알지 못하고 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등등에 대해서 매우 무지합니다.

- 이 무지 곧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안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교가 신약성경교회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 이런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들의 ‘환원운동’ 곧 ‘신약성경교회운동’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의식(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약식세례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후 츠빙글리 와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에 의해서 바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약식세례를 적극 지지한 나머지 재침례 교도들을 처형한 이유는 그들이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종교의 지속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들이 침례가 성경적인 의식이란 것을 몰라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츠빙글리는 가톨릭 미사와 주의 만찬 의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사의 미신적인 면만 보고 주의 만찬을 일 년에 네 차례로 줄여버렸습니다.

- 한 세대 후에 칼뱅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겼으나 시의회종교의 권력인 시의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 선지자 호세아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었어도 국가 패망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가권력이 귀를 틀어막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있습니다.



A I M H I G H

오름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